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 성립사 연구*

A Study on the Foundation of the Great Library of Alexandria

남 태 우(Tae-Woo Nam)**

목 차

- | | |
|--------------------------------|-------------------------|
| 1. 서 론 | 3. 3 도서관의 설립 |
| 2.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 성립과정의 기초 | 3. 4 도서관의 구조와 기능 |
| 자료원 분석 | 3. 5 '학자사서'들의 계보 |
| 2. 1 Aristeas서간문의 분석 | 4. 장서구축의 과정 및 정책 |
| 2. 2 Tzetzes의 『Prolegomena』 분석 | 4. 1 수서정책 |
| 3.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박물관의 성립과 발전사 | 5.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의 파괴상 |
| 3. 1 Soter왕의 도서관 건립 발상 | 5. 1 Julius Caesar의 파괴설 |
| 3. 2 박물관의 설립 | 5. 2 Caliph Omar의 파괴설 |
| | 6. 결 론 |

초 록

본 연구는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의 성립사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연구결과물은 Pinakes 목록이나 그 편자로 알려진 Callimachus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도 한국의 경우 전무한 실정이다. 창시자와 실행자라는 각각의 역할을 분담한 Ptolemaios 1세와 Demetrius 두 사람의 업적으로 이루어진 Alexandria 대 도서관은 인류가 최초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집대성한 복합 문화기관이다.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의 설립은 책의 출판과 상업적 매매의 거대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그렇지만 헬레니즘 시대에 관한 언급에서 우선 순위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그리스인들에게 그 시대에 있어, 그리스인들의 지적 최고의 상징이었으며, 독립된 국가로서 연방에 불과하던 그리스인들을 하나로 결합하게 해 주었던 통합 요소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 당시로는 놀라울 정도로 책의 축적이 가능했던 것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그리스 세계와 동방 사이의 관계 개방, 둘째, 내용비평 연구에서 새로운 문학 분야의 소개이며, 마지막으로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첫 번째 왕 Soter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 주었던 책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 이러한 세계적 도서관으로 구상했던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의 성립과 쇠락에 대한 연구는 도서관문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가치가 높다.

ABSTR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Foundation of the Great Library of Alexandria. The foundation of the Great Library at Alexandria was a natural consequence of the enormous growth for book production and the book trade, in which Athens had taken the lead from the fifth century BC onward. Alexandria Library(BC. 290~AD. 642) is the first to house the collection of comprehensive knowledge on the world in human history. The library is the birthplace of mainstream of Greek civilization and played a pivotal role in academic worl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1) considering establishment, development and decline of Alexandria Library, 2) researching the historical foundation background of Museum and Library, 3) investigating effect on the cataloging history 4) reviewing the value of the Library's stock of books. This Study employs historical research methods mainly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mutual comparative methods of many researcher's studies.

키워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성립사, 알렉산드리아 박물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파괴

* 이 논문은 2001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amtw@cau.ac.kr)

논문접수일자 2002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3월 22일

1. 서론

유물발굴이나 고기록의 해석을 통해 알려진 고대 도서관으로는 BC. 7세기에 Assyria의 왕 Assurbanipal이 수도인 Ninevah에 창립한 도서관, BC. 3세기경의 Alexandria 도서관, BC. 2세기에 터키 북부의 도시 Pergamum에 있던 도서관, 그리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설립된 몇 개의 도서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대 도서관 중 Alexandria 도서관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Alexandria 도서관이 존재할 당시에 헬레니즘 문명이 절정기를 이루었고, 또한 도서관과 국가발전의 상호작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 문화는, 도시국가가 자유로운 시민생활 속에서, 인간성을 자유롭게 신장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창성의 근원이 있었다. 그리스 사람들은, 현실적인 가치를 추구하여, 이성을 내세워 인간과 자연을 탐구하였다. 그 지적탐구의 방법·결과는 이론화되고, 체계화되어, 철학·과학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풍부한 상상력과 신선한 감정을 일으켜, 인간성이 풍부했던 신화·문학이나, 조화와 균형을 이룬 미술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그리스 문화는 Alexandros와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Hellenism문화로서 발전된 것이다. 헬레니즘 문화는, 도시국가를 기반으로 한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 번성한 이전의 문화와는 달리, 오히려, 세계문화로서, 그리스·이집트·페르시아 등의 제 문화를 집대성하여 개화하였다. 그 중심이 알렉산드리아였다. 이 도시에 Ptolemaios 왕조 밑에서 강력하게 문화진흥정책이 진행되어, 세계각지

에서 학자들이 모이고, 여러 가지 학예·기술이 번성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은, 고전 그리스의 시대를 능가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헬레니즘 문화는 대개 새로운 것의 창조가 아니고, 그때까지 것의 집대성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것은 도서관과 도서관의 발전에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래 문화라는 것은 개개의 사람들의 착상·사고·소감에 그 시작이 있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확대되고, 보편적인 것으로서 사회에 수용되어지는 것이다. 개개로부터 출발한 것이 서서히 넓어지는 과정에서, 서적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문화의 집대성은, 따라서, 서적에게 힘입은 바가 큰 셈이다. 그리고 또 문화의 집대성 그 자체도, 서적을 수집·조직·축적·이용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것과 같은 기능적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서 도서관이 태어나고, 성장하여, 서지통정이 필요해지고,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집대성 과정에서 태어난 곳 중의 하나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다.

어떤 도서관사에서건, 그 도서관이 왕실, 공공, 수도원, 사립이든 차지하고, 역사적 교훈은 설립자의 죽음 이후에 후계자가 도서관과 책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면, 도서관의 종말과 궁극적인 파멸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Ptolemaios I세와 II세의 후계자로부터 Cleopatra VII세에 이르기까지 항상 '세계 도서관'의 설립에 대한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그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상습적인 교체와 함께 꾸물거리며 단지 그것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뿐인지 고찰해

불 필요가 있다.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의 설립자이고, 근원적으로 '세계 도서관'의 창립을 꿈꾼 사람은 Ptolemaios I세 Soter이다. BC. 283년에 Ptolemaios II세로 그의 뒤를 이었던, 그의 아들들은 정력적인 에너지로 그가 BC. 247년 죽을 때까지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그의 통치기간 도서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졌던 이 시기는 사실 Zenodotus, Callimachus, Apollonius Eidographus 등의 도서관 선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Ptolemaios III세 Euergetes의 계승에서부터 Ptolemaios IV세 Philometor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도서관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전부는 그곳의 관장들의 전기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새로운 책의 수집과 박물관 활동의 감소는 BC. 2세기쯤부터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종말의 시작은 두 가지 사건이 신호가 되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Pergamum의 Eumenes II세의 결정과 다른 하나는 Ptolemaios Euergetes II세에 의한 알렉산드리아의 지식인들에 대한 박해는 도서관의 마지막 학자 겸 관장인 Aristarchus의 은퇴와 함께 정확히 동시에 일어났다.

이러한 세계적 도서관으로 구상했던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의 성립사 연구는 매우 가치가 높다. 그러나 사료부족으로 연구가 아주 미흡하며, 더구나 국내의 연구는 전무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의 성립사 연구는 정보문화사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상기와 같은 연구내용을 고찰하기 위해서 주로 이론적 연구에 바탕을 둔 문헌연구와 역

사적 연구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비교 연구하는 방법 등을 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사료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제한점은 있으나, 언급된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국가 대표도서관의 본질, 기능을 규명하는데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도서관 가지고 있는 다차원의 기능을 규명하는데 1차적 자료원으로서도 가치가 있다.

2.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 성립 과정의 기초 자료원 분석

본 장에서는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대 도서관이란 함은 서지통정의 역사에서 이전의 어떤 프로그램도 이보다 세계적인 것이 없었음을 메타포로 나타낸 것임)의 성립과정을 규명하는데 사용될 1차자료의 성격이 강한 『Letter of Aristeas』과 The 『Prolegomena』 of Tzetzes』(Staikos 2000, 64)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도서관 성립과정에 대한 어떤 자료도 확실한 정보를 주는 자료원이 없기 때문이다. 그 동안의 발표된 논저들의 대부분이 추측에 가까운 추론으로 기술된 것이 많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비록 1차 자료원으로서 절대적 가치로 삼을 수는 없지만, 유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자료를 분석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다.

도서관에 대한 첫 번째 역사적 언급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집트의 왕들에게 도서관의 형성에 대해서 충고했다고 말한 Strabo로부터 기원한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Ptolemaios

가 알렉산더의 권력을 물려받기 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지 18개월 후에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의 생존 기간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Aristeas의 서한과 도서관 설립에 있어서 Ptolemaios의 주도권에 대한 언급과는 별도로 그 방식에 대해 수행되었던 정확한 묘사는 도서관과 Callimachus의 관리자들과의 전기에서부터 나온다. 관리자들과의 명부를 읽고 있는 파피루스들 중의 하나는 Demetrius of Phalerum의 지위와 공헌에 대한 Aristeas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을 뿐 아니라, Callimachus와 Apollonius Rhodius에 대한 새로운 흥미로운 주장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증거와 이론들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한 제안한 원인, 제도와 성장, 결정적인 파괴와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 시키고, 모순되며, 종종 신화의 영역과 맞닿아 있기도 한다. 특히, 그 파괴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렇다. 조사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도서관이 박물관의 필수적 요소였다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기관의 설립과 처음의 조직에 있어 필수적인 근거들은 약 BC. 160년쯤에 그 자신을 Aristeas라고 부른 남자에 의해 쓰여진 서간문, BC. 1세기에 박물관을 방문했던 Strabo, 박물관의 구성원들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사실과 도서관의 확장에 관한 기초적인 철학에 관련이 있는 Galen, Ioannes Tzetzes에 의한 『*Prolegomena to Aristophanes*』, 그리고 많은 도서관 관리자들과의 삶에 관한 것이다.

2. 1 Aristeas서간문의 분석

Aristeas의 서한의 가치는 두 가지의 다른

방향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것은 도서관과 관련된 것, 헬레니즘 시대동안 유대인의 그리스화된 문화적 전통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첫째는 옛날에 이런 문서는 서한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얼마 후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 이것은 BC. 180년에서 145년 사이, Ptolemaios IV세 Philometor의 통치 기간인, 약 160년쯤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신빙성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도서관 확장 배후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정보원이다.

Ptolemaios II세 Philadelphus의 궁정에서 그리스인 척 했던 Aristeas는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인과 유대인들간의 문화적 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그리스화된 문학적 전통을 칭찬하는 일에 신중하게 착수했던 유대인이었다. 그에 따르면 Demetrius는 도서관을 관리하는 백지 위임권을 받았다. 그 형태는 신작 도서의 모든 목록을 왕에게 보고하거나, 도서관 확장을 진행시키는 과정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과 같이 정기적으로 왕에게 보고하는 것과 같은 업무였다. 이런 접견을 통해서 Ptolemaios와 Demetrius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의 복사본을 소장하려면 50만 장 가량의 파피루스 종이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따라서 Ptolemaios가 알고 있는 세계의 모든 왕과 왕자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도서관과 사료 보관소에 소장하고 있는 모든 책의 복사본을 그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장서구축 정책으로 '세계 도서관'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Ptolemaios는 특히 도서관을 통째로 손에 넣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의 보고서에서 Demetrius는 왕에게 책 탐색에 관한 노력을 유대 세계로 확장할 것을 충고했다. 또한 그는 왕에게 현존하는 유대인의 모든 책의 복사본은 도서관에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Ptolemaios가 여러 도서관을 방문하던 중 한번은 Demetrius가 그에게 책장에는 이미 20여만 개의 두루마리가 있다고 말하며, 도서관이 유대의 문학 작품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들은 고대 시리아어가(그 시대의 지식의 기준이 되고 있었던) 아닌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후 그리스어로 문학작품들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Aristeas에 따르면 모세 5경(Pentateuch)은 Ptolemaios Philadelphus가 그리스인과 유대인간의 우정의 표시로 70인역의 성서에 의해 번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선의와 자비의 제스처로 Ptolemaios는 예루살렘의 고위 성직자인 Eleazar에게 성서를 번역할 유대인 학자들을 한 팀 보내달라고 요청하기에 이른다. Eleazar는 기꺼이 학자들을 모집하였다. Ptolemaios는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특별한 여행을 하였고, 그래서 고위 성직자는 이스라엘의 각 12부족에서 여섯 명의 학자들을 추천하였다.

Ptolemaios는 그 유대인 학자들을 최고의 호의로 환영했고, 그들에게 매우 다양한 주제들에 관한 통찰력 있는 토론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그들의 학식을 시험했던 연회를 베풀기도 하였다. 유대인 번역가들은 박물관에 숙박하지는 않았지만, 파로스라는 작은 섬 앞 바다의 그들만의 특별한 숙소에 숙박시켰다.

Demetrius는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하였고, 그의 언어학자들을 동반하여 그에게 정확히 60일 안에 끝낼 그들의 일을 점검하도록 하였다. 도서관이 책으로 완전히 가득 찼을 때, 그들의 고유어와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 혹은 그리스어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언어학자들에게 맡겨졌던 그리스어의 형태로 축소된 것 등 모든 종류의 책을 보관하게 되었다. 이처럼 도서관 발전에 심혈을 기울인 Philadelphus Philometor 등은 Demetrius의 도서관 사상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장서구축 정책을 강력하게 수행하였으며, 심지어는 세계의 모든 책을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축적하려는 노력까지 하였다. 고전 작품을 축적하기 위해 시작된 번역작업이었지만 이 작업이 도서관의 다양한 기능 중 하나로 정착되게 한 사업이었다.

2. 2 Tzetzes의 『Prolegomena』 분석

Demetrius가 도서관 발전에 끼친 역할에 대한 언급은 작자 불명의 15세기 라틴 번역본을 포함한 Ionnes Tzetzes에 의한 『Prolegomena to Aristophanes』(Staikos 2000, 65)에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나 있다.

도서관과의 관계에서 Tzetzes는 우리에게 『The Pleiad』(7명으로 이루어진 뛰어난 사람들의 일단, 특히 1563년에 Ronsard을 중심으로 형성된 프랑스 시인그룹)로 알려져 있는 7명의 비극 배우들의 유명한 집단에 속해있는 학자들에 관한 믿을만한 정보를 주고 있다. 『The Pleiad』는 고대 비극 작품들에 대해서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고, 논평하려는 목적에

서 작성된 것이다. Alexander of Pleuron는 비극과 대중을 위한 호색 드라마를 편집하도록 위임되었고, Lycophron of Chalcis는 코미디를 편집하도록 위임되었으며, Zenodotus는 호메로스와 다른 시인들의 작품을 편집하는 번거로운 일을 책임졌다.

Tzetzes는 『Prolegomena』에서 Pisistratus가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수집하고 편집하려고 했던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그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4명의 학자, 즉 아테네의 Onomacritus, Epicongylus, Zopyrus, Orpheus를 고용하였다. Demetrius는 Tzetzes에 의하면, Ptolemaios II세에 의해 알렉산드리아에 1개가 아닌 2개의 도서관에 소장 될 세계의 모든 책을 다 수집하도록 위임되었다. 이 정도가 Aristeas의 서한에서 나온 정보라면 그것은 궁전 밖의 존재로 묘사되었고, 알렉산드리아의 Rhachotis 지역에 있던 Serapis사원에 인접해 있었다는 두 번째 도서관에 대한 가장 빠른 언급이다.

열린 공공 도서관으로 마침내 42,800권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소장하였고, 반면 궁전 안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400,000권의 혼합된 내용의 두루마리와 90,000권의 한 작품만으로 구성된 즉 혼합되지 않는 두루마리를 소장하게 되었다. 그 정보는 왕실의 사서로, 책을 분류, 구분하고 색인을 작성하는 엄청난 작업을 맡았던, Callimachus로부터 수행된 것이다. 많은 나라들로부터 책이 수집되었고, 수많은 언어들로 쓰여진 책들이 한데 소장되었을 때, Ptolemaios는 그것들을 언어학자들로 하여금 적합하게 각각의 경우를 포함해서 그리스어로, 다른 언어들로 번역하게 하였다. 이처럼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 건립에 Demetrius의 영향

력과 Serapis도서관이 공공도서관 역할을 수행한 것, 그리고 적어도 두 개의 도서관이 존재하였다는 정보는 『Prolegomena』의 정보적 가치를 돋보이게 한다.

3.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 · 박물관의 성립과 발전사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에 700,000권에 이른 놀라운 정도로 책의 축적이 가능했던 것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그리스 세계와 동방 사이의 관계 개방, 둘째, 내용비평(textual criticism)연구에서 새로운 문학분야의 소개, 마지막으로 이집트 Ptolemaios 왕조의 첫 번째 왕인 Soter가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 주었던 책에 대한 애정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망하기 바로 1년 전, BC.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자, 대다수 그리스인들은 점차 헬레니즘의 최상권이 이제 거의 그 시대에서 가장 심각한 한계에 이르렀다는 두려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개념과 모든 것은 인간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에서의 문제 제기로, 그리스 세계의 결합, 그리스인의 생활 방식과 같은 잘 알려진 오랜 질서는 급속히 파괴되었다. 다행스럽게도 Diadochi(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사이의 주권 다툼은 파멸적인 결과를 낳거나 광대한 그리스 제국의 근본적인 결합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가들 안에서의 철학적 접근으로서의 헬레니즘에 대한 확립이 그리스인들과는 매우 달라서, 지적 활동을 위한 새로운 구조가

구축되었다. 그리스의 문학적, 철학적 전통 방식은 특히 바빌로니아, 유대, 이집트로 보급되어 그들 국가의 사고 방식과 충돌하게 되었다. 그 지역에서는 그리스의 명백하고 날카로운 사고 방식과 대비되는 신비주의와 상징주의가 특징을 이룬다. 인종 혼합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의 평화로운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리스인들에게 이해의 정도, 가까운 동양 민족의 문학적 전통에 대한 경의, 또한 그들의 명백한 행위의 근거가 될 '세계적 도서관' 건립을 보여주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본 장에서는 세계 도서관의 건립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3. 1 Soter왕의 도서관 건립 발상

Soter로 알려진 Ptolemaios 왕조의 첫 왕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상을 존경하고 신봉하였으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대 마케도니아의 정복자로서의 특징을 형성하는 역할로 잘 알려져 있는 역사적 인물이다. 이런 것들은 그의 왕국을 지적이고 문화적인 '그리스 황제'의 공간으로 만들고자 결정하고, 그 과정으로 알렉산더의 결정을 '세계 도서관'을 세우는 것으로 이행했던 주 이유였을 것이다. 박물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Serapeum 도서관의 소요 학파의 학교를 가장 중요시 한 학자들과 예술가들을 그의 수도로 모이게 하려는 알렉산드리아와 Ptolemaios의 정책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BC. 1세기 Cleopatra에 이르기까지 그 이후의 모든 이집트 왕들에 의해, 때론 열정적으로, 때론 무관심하게 추종되어왔던 전통을 수립했다.

박물관과 도서관은 Ptolemaios에 의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렉산더가 사망하자 Ptolemaios는 그의 시신을 알렉산드리아로 옮겨, 그의 명성에 걸맞는 웅대한 묘를 건설하였다. 알렉산더의 대를 이을 후계자들 사이의 투쟁에서 Ptolemaios는 신중한 태도와 외교적인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의 Cyrene, Cos와 Cyprus를 포함한 전략상 중요한 많은 조그만 영토들을 획득함으로써, 그의 왕조를 굳건히 하였다. 그리고 그는 각자가 알렉산더 제국 전체의 유일한 후계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의 라이벌들 중에서 두드러지는 Perdicas와 Antigonos를 전투에서 패배시켰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적통임을 과시하였다.

장군으로서, 외교관으로서, 중재자로서 현명한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그리스 세계의 문화적 중심지로 양성하는데 그의 뜻을 두었고, 이러한 이상을 현실로 수행할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Theophrastus는 아테네를 떠나는 것을 거부했고, 반면 Lampsacus의 Strato는 Theophrastus로부터 소요학파(Peripatetic)의 교장직을 이어받기 위해 돌아오기 전 이집트에 잠시 머물렀다. 운이 매우 좋았던 까닭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Demetrius가 아테네를 벗어났을 때, 그는 결국 알렉산드리아에 은신처를 마련해 그 곳에 정치적 망명자로서 살기 위해 정착했다. 그래서 그는 박물관 건립에 대한 개념을 실제적으로 구상하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토대를 형성하는 책 수집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Demetrius는 날카로운 지성과 문학에 대한 성실한 열정을 지닌 박식가로서 어떤 조직화

된 사회에 있어서 독서를 장려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열렬히 신봉하는 사람이었다. Cicero에 의하면 그는 Theophrastus의 가까운 벗이 되었고, 웅변술과 철학에 있어 조예가 깊었다. 그는 BC. 325년에 정치계에 등장하였으며, 그때 아테네의 연설가들은 그들의 권위를 잃어가고 있었던 시기여서 결과적으로 그는 빠르게 그가 원하던 명성을 얻게 되었다. Cicero는 그때 개화된 법률이 그 도시에서 많은 지지세력을 얻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소오학파에 대한 그의 헌신과 교육 체계에 쏟아부었던 혁신의 노력이 그의 평판을 더욱 좋게 하였다. 그는 또한 정부에서 더 이상 비용이 많이 드는 작품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았던 까닭에 침체되어 있었던 연극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는데, 이것은 아테네 시민들이 그를 우상화시킨 또 하나의 이유였다. 그러나 이런 번영과 평안의 상태는, Demetrius Poliorcetes가 Piraeus의 항구에 그의 함대를 이끌고 들어와, 총독이 사형을 면하도록 도망가게 놓아두면서, 아테네 민주주의자들의 반란을 자극했던, 307년, 파괴되었다.

이런 연유로 Demetrius는 마침내 알렉산드리아에 망명지를 찾았다. 그래서 그는 Ptolemaios의 가장 중요한 집단에 수용되었으며, 그래서 Strato처럼 그 역시 아테네의 Lyceum과 알렉산드리아의 박물관 사이에 연관성을 제시했던 일이 가능했다. 그러나, 박물관과 도서관에 대한 그의 공헌도가 중요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일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신뢰할 만한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 그가 도서관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려고 시도했던 노력에 관한 두 가지의 언급(Aristeas의 서

한과 비잔틴 학자 Ioannes Tzetzes에 의한 『Prolegomena to Aristophanes』)중 어떤 것도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전하여진 역사적 사실을 종합해 보면 도서관·박물관 설립의 발상은 책 사랑의 방법, 부국강국으로 가는데 도서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당시의 날카로운 지성과 문학에 대한 성실한 열정을 지닌 박식가로써 어떤 조직화된 사회에 있어서 독서를 장려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열렬히 신봉한 Demetrius의 직접적인 도움을 얻어 도서관은 탄생된 것이다. Demetrius의 이러한 헌신은 Soter왕의 도서관건설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짝을 이룸으로서 현실화되었고 이 두 사람의 사상적 연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사랑에서부터 기원한 것이다.

3. 2 박물관의 설립

뮤즈 신들을 섬기기 위해 문화 광장을 설립하고자 한 생각은 Ptolemaios에 의해 고안된 것은 아니다. 그리스 세계에는 이미 이와 유사한 종류의 광장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들 중 일부의 근원은 피타고라스와 그의 원형 광장으로까지 소급할 수 있다.

가장 고도로 발달한 예는 Theophrastus하에 존재했던 『Aristotle's Lyceum』의 『mouseion』인데, 강의실과 안뜰이 있는 도서관, 열주(列柱) 화랑, 정원 산책로 및 신과 인간들의 수많은 동상들, 그리고 센터에 신전과 제단을 갖추고 있는 전문 교육 및 연구센터이다. Diogenes Laertius는 광장의 출현을 암시하고 있는 Theophrastus의 유언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나는 나의 재산이 다음과 같이 사용되도록 Hipparchus에게 위탁하고 싶다. 우선, 『mouseion』과 신의 동상을 완성시키는데 사용할 것, 또한 동상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사용할 것, 두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흉상과 신전에서 사용될 다른 봉납품들을 재건설되는데 사용할 것, 『mouseion』에 인접한 조그만 주랑이 예전의 모습만큼 훌륭하게 재건설되고, 세계의 지도가 그려진 현판이 아래쪽의 주랑에 재배치되는 데 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단이 가능한 한 아름답고 격조있는 모습으로 수리되는 데 사용할 것'(Staikos 2000, 60-61) 등이다. 이처럼 Theophrastus의 유언을 따라 그대로 건축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연구소나 학교에서 도서관이 센터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하고 있다.

Ptolemaios I세가 Theophrastus를 박물관의 경영을 위해, 또한 그를 우선적으로 임용하고자 하기 위해 알렉산드리아로 부르고 싶어했던 한가지 이유는 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고, 어떤 의미에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작업을 계승받은 자였으며, 따라서 새로운 연구소에 거대한 명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소요학파의 학교에 약 2,000명 가량의 학생과 청강생이 있었기 때문에 Ptolemaios는 그 학교 전체를 알렉산드리아로 옮겨오고 싶어했다는 것이다. 그의 야망은 그리스 전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아테네 출신의 Strato, Cos출신의 Philetas, 에베소 출신의 Zenodotus, 그리고 아마 Demetrius, 극히 소수의 명성을 지닌 이들까지)을 초빙하려고 계획한 그 목적과 함께 교육과 학문의

범 그리스주의적 광장을 세우려는 것이었다.

297년에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했던 Demetrius는 소요학파 학교의 구성과 그것과 관련된 다른 것들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아테네에 총독으로 있는 동안 그는 학교가 합법적인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Theophrastus가 자신이 소유한 약간의 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Attica에서는 재류 외국인이 자신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불행하게도 Ptolemaios I세의 통치 기간 동안의 사료에는 단지 Hecataeus of Abdera 나 Manetho와 같은 박물관에 관계된 것만 언급되어 있다. 반면, 박물관을 알렉산드리아의 관광지 중 하나로 여긴 Herondas는 도서관에 관련된 정보는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박물관에 관해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직접적인 묘사는 BC. 1세기에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하였고 그곳의 도서관에서 연구했던 Strabo(Mason 1962, 92)의 것이다.

박물관은 학문의 연구소로 건립되었다. 박물관의 특징 중 Ptolemaios 왕조에 의해 임명된 성직자가 지배했다는 사실에 의해 증명된, 종교적인 면은 고대 이집트의 전통의 잔존이다. 궁전의 뜰에 주랑과 궁전을 따라서 포장된 산책로와 함께 있는 화려한 건물, 박물관은 Strabo가 언급했었던 『exedra(일종의 원형 연회장)』뿐만 아니라 직원과 학생을 위한 기숙사와 같은 모든 보조적인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관 중앙에 있었던 듯하다(Staikos 2000, 60-62).

당시에 박물관 연구원들은 매일의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에 대한 걱정 없이 뮤즈 신들을 섬기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권들

을 누렸다. 상당한 양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며, 생활을 즐겁게 해 주는 여러 설비들도 지원 받았다. 또한 그들은 식사와 숙소를 무료로 제공받았으며, 세금도 면제받았으며, 고액의 월급과 그들의 요구를 따르는 가사 일을 돕는 하인들까지 제공되었다. 그들의 이러한 엄청난 특권화된 대우는 그리스 전역에 많은 비판을 일으켰고, 종종 그들의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행한 업무의 낮은 질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이나 비꼬는 말을 듣기도 했다. 회의학과 철학자이며, Pyrrho의 제자인, Timon of Phlius는 박물관을 뮤즈신들의 새장이라고 불렀으며, 또한 그곳의 철학자들을 유별난 새들이라고 비유하였다(Staikos 2000, 62-63). 그리고 그는 『Phenomena』라 불리는 시의 작가인, Aratus of Soli에게 개정판을 사용하는 대신에 호메로스의 옛 판본을 사용하라고 충고함으로써, Zenodotus의 편집 업무에 대한 질을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사실상 박물관의 구성원들은 금박을 입힌 감옥에 살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심지어 그들이 건물 밖으로 나갔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궁전의 땅 안에 있는 것이었고, 그들이 나가는 것은 거의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Timon의 말은 그리스 세계의 중심지에서의 학자들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 특히 아테네의 학자들 사이에서 가끔 발발하는 학구적이지만 종종 격렬한 논쟁들과 같은 종류의 것들을 수행하는 박물관의 학자들과 다른 지식인들 사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소피스트들에 맞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쟁이 새로운 문학적 연구를 신봉하는 이들, 특히 박물관의 학자들에 대한 고전학

자들의 비난으로 대치되었다는 것뿐이다.

그러나 박물관의 관리자들이 대개 왕실을 위해 가정교사로 1인 2역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안에서 그들의 학자적인 임무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문학자들이 그들의 강의 시간을 결정했는지, 자신들의 감독 아래에 특정한 학생을 두었는지, 정기적인 강의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증거도 남아 있지 않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의 학자적이고 문학적인 작품들의 대부분이 Ptolemaios가 그들의 세계 도서관을 위해 수집했던 방대한 양의 도서들을 정리하고, 평가하고, 분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뿐이다. 왕실의 연금지원을 받은 학자들은 필사작업, 필사의 정확도 확인 및 도서관을 '고대 세계의 영광'으로 만드는데도 혼신의 힘을 기울렸다.

3. 3 도서관의 설립

그리스를 병합한 Macedonia의 Philp왕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확립하고 페르시아 원정의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왕실 내분으로 피살되고 말았다. 따라서 통치권은 20세의 어린 아들인 Alexandros왕(Alexandros III세, 별칭은 Alexander the Great, BC. 336~323년)에게 넘어갔다. Philp왕은 BC. 434년에 자신의 아들 Alexandros의 가정교사로 아리스토텔레스를 초청했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왕이 원정을 떠나 왕자가 섭정으로 국정을 책임질 때까지 즉 13세부터 3년 동안 왕자의 교육을 책임졌다. 이로 인하여 Alexandros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철학과 의학 및 과학적 탐구에 깊은 흥미를 갖게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은 Alexandros왕은 짧은 기간 내에 동으로는 인더스 강, 서로는 마케도니아, 남으로는 이집트, 북으로는 카스피해에 이르는 세계제국을 건설하였다. 그 결과로 오리엔트와 그리스 세계를 하나의 정치·문화권으로 묶는 헬레니즘 세계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BC. 331년 Alexandros왕은 자신이 명명한 도시 Alexandria시를 건설하였다. BC. 323년에 Alexandros왕이 세상을 떠나자 제국은 세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는 Kassandros와 Kassandros왕조에게, 페르시아와 바빌로니아는 Seleucus와 Seleucus왕조에게, 마지막으로 이집트는 Ptolemaios왕가를 세운 Ptolemaios I세 Soter에게 분할되었다.

Ptolemaios I세(367년?~283년)는 Alexandros의 시신을 이집트로 빼돌려 황금관에 넣어 Alexandria시에 안치했으며, 여러 도시에서 Alexandros왕은 신과 같은 예우를 받게 하였다. 이렇게 해서 Ptolemaios 왕조는 Ptolemaios I세가 왕조를 개창한 BC. 305년부터 마지막 왕조인 Cleopatra까지 약 300년간 지속된 것이다. Ptolemaios I세는 Alexandros대왕의 어릴 때 친구로서 Alexandria를 중심으로 그리스와 같은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Ptolemaios I세는 Alexandros왕이 세운 동서 융합정책 정신을 따랐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이집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 사이의 결합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고유한 시민적·정치적 제도 및 백성들의 믿음과 종교를 존중했던 Ptolemaios I세는 문화

발전에 적합한 관용과 보호의 풍토를 이집트에 조성했다. 그로 말미암아 Ptolemaios I세와 아들 Ptolemaios II세(Philadelphos BC. 308~246)는 그리스 학자를 비롯한 당대의 훌륭한 학자들을 초청하였으며 Alexandria는 마침내 헬레니즘 학문의 중심지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풍토와 사상으로 인해 Ptolemaios I세는 그의 재위기간 중에 오늘날 잘 알려진 Alexandria 도서관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Alexandria 도서관 창립 연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 그것은 창립이라는 말의 의미에도 근거하지만 Alexandria 도서관의 창립 연대는 몇 가지 맹아(萌芽)로부터 즉, 건물, 장서 등의 물질적인 기초 확립까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연구자들은 대개 창립 연도에 대해서 명확한 기술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광의의 의미에서 본다면, Alexandria 도서관의 창립연대는 대략 BC. 290년경부터 BC. 240년경까지의 근 50년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략적인 범위를 나타낸 것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Alexandria 도서관은 Demetrius가 도서관에 관계한 BC. 290년경에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Alexandria 도서관은 “처음부터 도서관이라는 명확한 형태로서 독립적으로 건설된 것이 아니다”(副島秀夫 1971, 3). 즉 복합적 문화기관으로 설립된 것이다.

Aristoteles학파의 한 사람인 Demetrius는 아테네 출신의 학자로서 Alexandria가 세계 학예의 중심지가 되기를 꿈꾸고, 많은 서적을 갖춘 학예센터의 창립을 Ptolemaios I세에게 진언하였다. Ptolemaios I세는 그 의견을 수용하여 장엄한 건물의 『Museion』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Museion』은 『Muse』를 위한 곳으로 『Mouseia』라 불리는 특별한 축제에서 문학적 열정을 해소하고, Homer시대의 서사시를 찬양했다.”(Fraser 1972, 312~313). 이것은 “새로운 『Museion』 설립을 위한 명칭을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Alexandria 기관에 대한 학문연구의 종교적인 특성과 중요성, 건축술을 밝히는 『Alexandria Museion』의 그리스적인 배경”(Shubert 1993, 146)인 것이다. 『Museion』은 “연구와 교수를 겸하도록 Lyceum을 본 따 건축되었으나 규모는 훨씬 장대했다. 『Museion』에는 약 50만 권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과 100명의 교수가 배치되어 국가에서 봉급을 받았다. 이 『Museion』은 600년 가량 지속되었지만, 과학의 측면에서 볼 때 처음 200년 동안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Mason 1962, 49). 따라서 『Museion』은 학문 연구기관의 성격이 강한 시설로서 건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Museion』은 성역과 같은 의미로서 그리스어 ‘Mousa’의 영어형 ‘Muse’이며 ‘Muse신들의 관(館)’인 것이다. 여기서 ‘Muse’는 인간의 모든 지적활동인 학술과 예술을 담당하는 그리스 여신의 총칭이다. 이것이 오늘날 『Museum』의 어원이 되었다. 현대의 『Museum』은 박물관, 미술관을 의미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학문 연구소’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근대까지만 해도 도서관 명칭에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되어 왔다. 예컨대, 대영 박물관도서관이나 Smithsonian 박물관도서관 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그러므로 Alexandria 도서관은 처음부터 독립적인 기관으로 설립된 것이 아닌 박물관 즉, 『Museion』의 부설기관 성격”(副島秀夫 1971, 3)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Alexandria 도서관의 최초는 『Museion』의 자료실과 같은 형태로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실의 형태에서 시작한 Alexandria 도서관은 “궁전, 『Museion』과 묘(廟) 등을 총합하여 왕궁을 의미하는 ‘Bruchium(Gr. Brycheion)’”(副島秀夫 1971, 3)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Ptolemaios왕가의 도서관에 대한 많은 기대와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왕가의 도서관에 대한 애착이 나중에 또 하나의 도서관 『Serapeum』을 설립하게 된다. 따라서 Alexandria 대 도서관은 사실상 Bruchium과 Serapeum의 총칭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분관시스템’의 효시라는 아이디어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Alexandria 사람들은 인간의 지적 활동센터로서의 상념을 담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Muse』를 위한 신전인 『Museion』은 “그 시대의 가장 대표자격인 그리스 학자, 시인이자 철학자 혹은 과학자들이 신분 높은 경력을 영위하는 안식처가 되었다.”(Bingen 1988, 43).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이 그 위대성을 성취한 시기는 Ptolemy Philadelphus시대에 이르러서이다. 책을 수집하려는 Ptolemaios의 열정은 엄청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선이 항구에 정박하면 화물 중에 필사본이 있는지 검색하고 선적되어 있으면 원본은 도서관에 소장시키고 정서된 복사본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관행으로 삼을 정도로 책수집에 열광적이었다. Ptolemaios는 아테네로부터 그리스 극작가의 희곡들의 공식극 사본들을 빌리면서 그 회수를 보증하는 보증금까지도 지불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보증금을 단념하고 원본은 알렉산드리아에 소장하고 복사본을 돌려주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소장품은 그리스의 필사본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페르시아, 히브리, 북부 인도의 원본들에게까지 이르렀다.

Ptolemaios의 통치기간 동안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해서 언급할 때, 도서관이 정확히 책을 축적하는 곳이라고 지칭되었지만, 도서관을 서지 및 문헌 활동들을 뒷받침했던 박물관과 다른 시설들로부터 분리시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도서관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 그 도서관은 Serapis 사원에 부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처음에는 대 도서관에 전적으로 의존했었다. 대 도서관의 역사에 대해 언급할 때, 우리는 먼저 Aristeas의 서한과 Tzetzes의 『*Prolegomena*』에서 자료를 얻을 수밖에 없는 한계성에 부딪친다.

이상과 같은 Alexandria 도서관 성립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Alexandria 도서관 설립에 관해 Demetrius의 제안을 Ptolemaios I세가 수용한 것은 단순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발전에 적합한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예상한 도서관 규모의 대·소가 실현되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학문을 부흥시키며 사회·문화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학문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소망인 것이다. 또한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즉, 그것이 전제군주라면 한번은 생각하는 업적 중의 하나였음에 틀림없다. 그 이유는 왕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곧 국력'으로 인식하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둘째, Ptolemaios I세가 그의 업적을 위한 길잡이를 발견하여 박물관과 부속 도서관을 조직

하게 된 것은 "Aristoteles의 Lyceum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Aristoteles와 Theophrastos (B.C. 372/369년경~288년경)의 교육으로부터 형성"(Bingen 1988, 43) 되었다. "Aristoteles는 도서관을 정리하는 방법을 이집트 왕에게 가르친 학자"(Shubert 1993, 146)로서 그의 영향력과 Aristoteles의 Leyceum을 물려받은 Theophrastos, 그리고 Ptolemaios I세에게 도서관 설립을 위한 사상 정립에 도움을 준 제자 Demetrius와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lexandria 도서관은 Aristoteles 학파의 많은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 Bruchium과 Serapeum 도서관의 총칭이 바로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이다. 이들 두 도서관에 대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3. 3. 1 Bruchium과 Serapeum 도서관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서관은 아테네가 아닌 이집트에 건립되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문화의 요람으로서 아테네에 버금가는 대도시를 나일강 어귀에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였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는 Ptolemaios 왕대에서 중요한 학문의 중심지가 되었다.

알렉산드리아 시대의 Ptolemaios I세인 Soter는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Demetrius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Burchium*』으로 알려진 격조있는 시내 왕궁 부근에 웅장한 건물을 건축하였다. 이 건물은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대학으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로 옮겨진 것은 책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표본, 공예품, 그리고 예술 작품들이 망라되었다. 아리스

토텔레스의 사상을 모델로 그곳에 『Lyceum』을 건립한 것은 Demetrius의 계획이었으며, 도서관 발전의 공 역시 그에게 돌려졌다. 그러나 H. J. de Vleeschauwer는 도서관의 기원은 그리스적인 만큼이나 오리엔탈적이며, “도서관 자체가 Ptolemaios와 그의 오리엔탈 도서관의 회상에서 비롯되었다”는 다소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도서관은 “창시자와 집행자라는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Ptolemaios와 Demetrius 두 사람의 업적”(Vleeschauwer and Wright 1972, 9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유명한 동양학자 Silvestre de Sacy는 Alexandria 도서관에 별도의 4개 도서관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개의 도서관이란 초창기 Ptolemaios에 의해 설립된 『Bruchesium』과 『Serapeum』 그리고 Augustus사원의 『Sevastium』 도서관, 마지막으로 『Alexandria 학교 도서관』”(Edward 1859, 22)이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Alexandria에 또 다른 도서관이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서관 역사상 Alexandria 도서관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도서관이 아닌 박물관 및 대학과 연관된 두 개의 도서관이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BC. 약 290년 건립된 『Bruchesium』에 있는 주(main) 도서관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서관은 약 50년 후에 Ptolemaios III세 Euergetes가 건립한 Serapis 신전에 있는 분관인 ‘딸 도서관’으로 알려진 『Serapeum』이다. 그러므로 Alexandria 도서관은 『Bruchesium』과 Serapeum 자매 도서관』으로 불리는 두개 시설을 망라한 총칭이다. 이들 두 도서관은 주제분

야로 장서를 소장한 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 역할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목적은 “모든 그리스 문학뿐만 아니라 지중해와 중동과 인도의 다른 언어의 저작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것까지 통합하여 거대한 국제적인 연구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었다”(Irwin 1959, 169).

1) Bruchesium도서관

『Bruchesium 도서관』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왕궁 안에 도서관을 포함한 박물관 또는 대학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도서관과 대학의 기능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오히려 일체화되어 있었다. 『Bruchesium 도서관』을 형성하는 일련의 건물들은 도서관·연구실·홀·천문 관측소·식당 등으로 구성된 공동연구소의 성격으로 건립되었다.

이러한 공동 연구소 성격을 띤 『Bruchesium 도서관』의 조직을 구성하는 주요한 멤버는 주로 학자·문학자·과학자들이었으며, 그 중 한 사람이 관장이 되어 『Bruchesium 도서관』의 경영을 책임졌다. 학자 사서인 Demetrius를 필두로 『Bruchesium 도서관』의 관장들은 모두 헬레니즘 문화의 저명한 학자·문학자이었다. Alexandria 도서관의 학자·문학자들은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고 각자가 연구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을 종제(從弟)의 형식으로 지도할 때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의 축적도 주제별로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2) Serapeum 도서관

Serapeum도서관은 아마도 Ptolemaios 9세

Euergetes 2세의 통치기간 동안 열었고, 로마 시대에 재 건축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Aphthonius의 묘사가 로마의 건물을 언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Serapeum 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들의 마지막 편집의 형태로 문학 작품들의 사본을 보유하고 있었던 공공 도서관으로 추측된다. 그것은 학자들과 박물관의 공적인 학자가 아니거나, 도서관에 출입하지 않았던 다른 지식인들의 수요를 공급하려는 의도였다. Serapeum 도서관은 4세기에든 여전히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었으며, 그의 증거는 7인 역의 성서와 성경의 해석에 관한 문서들이 보존되고 있었던 곳에 대한 언급을 한 다른 기독교의 학자들에 의해 뒷받침된다. Aristeas의 서한이 언급되었던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주로 그의 권위에 기대에서 전통으로 받아들여졌었다. 반면 진짜로 그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믿을만한 근거들이나, 역사적 사실들은 일관되게 편사거나 역사가들에 의해서 무시되었다.

일반적으로 『Serapeum 도서관』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아직 상세하게 이루어진 바가 없으며, 대개 『Bruchesium 도서관』에 관한 내용이거나 이 두 도서관의 확실한 구분 없이 도서관사에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Serapeum 도서관』 설립시기에 관해서도 일반적으로 Ptolemaios III세의 시대로만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Serapeum 도서관』의 건립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Ptolemaios III세 Euergetes는 왕궁 밖에 “그리스와 이집트 국민을 통합하려는 시도에서 Ptolemy 1세 Soter가 만든 가상의 신 ‘Serapis’의 이름을 딴 『Serapeum 도서관』

을 건립”(Archuletta 1989, 37)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목적과 관련하여 설립연도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약 50년 후’라는 어구와 “Serapeum의 신전 자체 발견을 통하여 원래 Ptolemaic사원이 Ptolemaios III세가 건축한 것”(Holmes 1980, 288)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Bruchesium 도서관』 설립을 약 290년경으로 추정한다면 두 번째 도서관인 『Serapeum 도서관』은 약 50년 후인 약 BC. 235년경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러한 『Serapeum 도서관』은 “Bruchesium과 같이 대규모가 아니지만, Alexandria 시민에게 공개되었다.”(瀧川雅俊 1985, 37). 그래서 『Bruchesium 도서관』은 왕실 도서관의 성격이 강하면서 오늘날의 대학도서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며, 『Serapeum 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Serapeum 도서관』은 기원전 47년 『Bruchesium 도서관』이 파괴된 후 Alexandria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되었으며, 기원전 43년에는 『Pergamon 도서관』의 20만권 장서가 이관되어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200년 이후는 『Serapeum 도서관』에 관한 기록이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Serapeum 도서관』 장서에 대해서 J. Tzetzes는 “42,800권을 소장하고 있다”(Blum 1991, 106)고 기술하였다. 이것은 『Serapeum 도서관』의 초기 소장 장서수일 것이고 언급한 바와 같이 후에 많은 장서가 증가되었을 것이다. 『Serapeum 도서관』은 물론 현재의 공공도서관처럼 완전히 개방된 형태는 아닐지라도 『Bruchesium 도서관』과 비교해서 훨씬 더 개방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공도서관의 성격을 가진 도서관으로 볼 수 있다.

『Brucheium과 Serapeum 자매 도서관』은 학습센터와 유일한 정보원으로 도서관의 명성을 한층 드높였다고 할 수 있으며, 헬레니즘시대의 최대 학문도시로 성장하여 많은 뛰어난 학자를 배출했다. 이는 도서관이 국가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존재로서 국가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4 도서관의 구조와 기능

Alexandria 도서관은 보다 큰 복합단지, 곧 예술과 과학방면에 문호를 개방한 일종의 연구소로서 천문 관측소, 동물원, 식물원 그리고 회의실, 식당을 갖추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서관조직을 구성하는 멤버는 학자, 문학자, 과학자, 지리학자, 의사, 역사가, 시인, 편집자 등 다양한 주제 전문가(학자)를 포함하였으며 이 중 한사람이 관장이 되어 경영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은 각각의 부서장 책임하에 여러 부서로 나누어졌다. 또한 10개의 대규모 연구실이 있었으며, 이 연구실은 식물원, 동물원, 해부실, 천문대 등 여러 주제 연구소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면에서 오늘날의 도서관을 센터로 한 종합대학교나 또는 거대한 종합연구소를 연상케 한다.

Alexandria 도서관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Irwin 1966, 31). 첫째, 그리스 문학의 전반적인 서지류의 편찬으로서 국가 서지의 편찬은 Callimachus에게 맡겨졌다. 둘째, 당시의 정리되지 않은 문헌들을 넓은 장소에 저장하고, 참고하기에 쉽도록 두루마리를 적당한 표준적인 형태로 편집하는 업무이다. 이러한 편집업무는 다양한 주제 전문가들

에게 맡겨졌다. 그것은 문헌의 개정이 아니라 두루마리의 표준형태로 저장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길이의 '도서'를 배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Zenodotus는 Homer의 과학적인 개정판을 출판하여 24권의 Iliad와 Odyssey를 배열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이 점차 구두법과 억양표시를 도입하는 것들이 포함되어졌다.

이외에도 도서관이 수행했던 업무는 도서 수집·분류·목록작성 외에 원전교정·주해작성·사본복제·출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또한 대규모적인 번역사업도 주요한 도서관 사업이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72명의 유대인 학자들에게는 '구약성서'를 그리스어로 옮기는 업무가 주어지기도 했고, Babylonia 필사본과 불교경전의 번역사업이 위촉되기도 했다. 즉, 도서관은 필사실, 번역센터, 출판국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도서관의 기본적인 기능인 소장기능과 학문연구의 기능까지 수행하였다.

고대사회 도서관들은 도서관의 성격상 이용자가 지배계층, 지식인 등 극히 일부 특권자에 한정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Alexandria 도서관의 문화사적 의의로서 특징적인 것은 Alexandria 도서관이 단순히 자료를 수집하고 이용에 공헌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도서관 자체가 새로운 학문의 성과를 산출한 장소로서 즉, 지적 생산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은 다양한 문헌을 통해 나타난다. 일본의 그리스 문학자 高津春繁(高津春繁 1969, 7)는 다음과 같이 Alexandria 도서관의 학문성가를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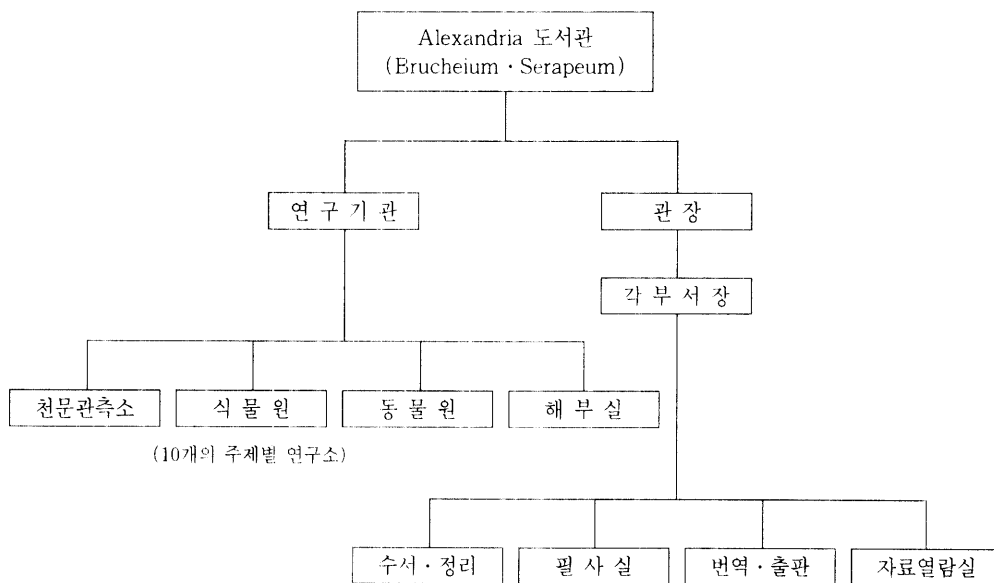
Alexandria 도서관이 최초 그리고 최대의 연구 중심이 되는 계기가 된 것은 Iliad와 Odyssey였다. 여기서 이 두 서사시를 위해 많은 사본을 모아 많은 학자들이 사본을 교합하고, 교정본을 발간하여 올바른 Homeros의 재현에 노력했다.... 특히 최대의 Homeros학자 Aristarchus는 이 대 서사시에 면밀한 교정을 시도했고, 그 때의 대본(臺本)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지학 연구 영역의 하나인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학문인 문헌학의 발생을 Alexandria 도서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지적문화유산을 오늘날까지 전승하게 한 학자사서들의 노력 및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H. G. Wells(Wells 1969, 115)는 다음과 같이 Alexandria 도서관을 평가하고 있다.

Ptolemasios I세는 Alexandria 도서관을 백과사전적인 지식의 창고로 만들려고 했다. 이것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의 복사 및 배포의 기관이기도 했다. 항상 도서관의 복제에 종사되어진 필경(筆耕)의 수는 방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Alexandria 도서관은 오늘날 우리들이 생활을 형성하는 지적 작업의 결정적인 출발적이고 지식의 조직적인 수집 및 분배가 시작된 곳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박물관과 도서관의 설립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일대기원의 획을 긋는 것이고, 그것은 근대사의 참된 시작이다.

Alexandria 도서관은 단순한 연구활동의 장소가 아닌 새로운 학문활동 그 자체였다. 언급한 고대 Alexandria 도서관의 조직에 대한 추정도를 그리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상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lexandria 도서관은 오늘날 도서관의 기능과 다름없



<그림 1> 고대 Alexandria 도서관 조직 추정도

는 역할을 수행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도서관 조직이 Alexandria의 문화 발전에 필수적인 존재로서 기여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도서관 기능뿐만이 아닌 종합적인 연구소로서, 대학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볼 수 있다.

3. 5 '학자사서' 들의 계보

Alexandria 도서관이 문명에 기여한 바는 학자이면서 사서로 근무한 연구자 집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Museion 도서관』의 학술연구에서 특히 문법학적 연구활동의 번성기는 소오 학파인 Demetrius가 이집트에 입성한 약 기원전 297년부터 Ptolemaios VIII세의 학자 추방사건(BC. 145년)까지 약 150년간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Alexandria도서관 역대 관장들은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도서관장을 중심으로 여러 석학이 모여 각 시대에 상응하는 특징 있는 학풍을 만들었다. 또한 이 학자들은 경우에 따라 '왕실의 교사'라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학자사서' 이면서 '주제전문사서' 기능까지 수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학도서관 측면에서 보면 '교수이면서 사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도서관 창립 당시 학자사서였던 인물들은 최고의 문법학자였던 Zenodotus(BC. 260), 그는 Alexandria 도서관의 1대 관장으로써 서고의 정리를 실시하였고, Homer의 작품을 비롯한 희랍 문학의 편찬에 착수하기도 하였다. 예술과 과학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으로 특히 인류 최초로 지구의 둘레를 측량한 연대지와 지리학의 창시자인 Eratosthenes(BC. 275년?~

194년?), 그의 후계자 가운데 다음 관장인 Aristophanes of Byzantium(BC. 257년~180년?)는 사전편찬이라는 큰 업적을 남겼다. 천문학자인 Hipparchus, 수학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왕에게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다'는 유명한 말을 한 기하학자 Euclid, 지식의 저장고가 심장이 아니라 두뇌라는 사실을 밝혀낸 Herophilus, 위대한 기계공학자 Archimedes,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설을 주장하여 실로 1500년 동안 서구 세계를 지배한 천문학자 Ptolemy, 그리고 Alexandria 도서관이 이교도의 성전이라 하여 Alexandria 교회의 Cynl주교의 사주를 받은 야만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참혹한 최후를 맞는 여성 수학자 Hypatia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이 도서관의 학자들을 흔히 'Alexandria 학파'라고 부른다. Alexandria 학자들은 도서관에 소장된 소중한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자신의 연구와 발견에 도움을 구했다. 그들 주위로는 지식과 창조작용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지적·문화적 움직임이 생성되었다. 그렇게 해서 지식 생산장소로서의 Alexandria 도서관은 그리스·로마문화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인간정신의 기념물이 애석하게도 남아 있지 않다.

이들 학자사서 중에서도 Cyrene의 Callimachus(BC. 305/310~240년?)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의 임무는 도서관에 수집된 모든 원본들을 정리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Callimachus는 Pinakes라고 알려진 도서목록을 편찬하게 된다. 이 Pinakes는 Alexandria 도서관장서의 분류와 목록을 위해 일련의 규칙을 확립한 도

서목록인 것이다. 또한 각 문헌들의 개요 및 나아가서는 비판적 평가와 함께 그것들의 검색방법을 완성시킨 목록으로서 평가받고 있다. 결국 학자사서는 언어학적 재능이 있는 학자들로 서고를 정리하고 수집된 원본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학자사서(Scholar-librarian)란 Webster사전의 전문직에 대한 정의의 별항에서 이와 유사한 '학문적 전문직'(Learned Profession)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교양교육을 포함한 고도의 아카데미한 학술연구를 기초로 하는 전문직 즉, 신학, 의학, 법학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 직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학자사서의 개념은 '학술적 전문직'의 개념과 상통하는 개념이다. 즉 학자가 아닌 한 학자사서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전문직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자사서는 사서직의 전문직성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로서 설명되며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적인 근거는 고대도서관에서 볼 수 있다. 예컨대, 서양에서 최초의 학자사서는 아리스토텔레스였으며, 동양에서 최초의 학자사서는 노자였던 것에서도 전문직으로서의 학자사서가 증명된다.

고대 도서관의 한 특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것이 학술 전문도서관임과 동시에 학문 연구소격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그곳에 종사하는 관원은 도서관의 정리, 대출, 관리만을 담당하는 사무적 내지 기술적인 문헌직이 아니고, 학문 또는 연구적 성격을 띤 문헌직이었다는 점이다. 라이브러리언(Librarian)은 곧 학자 출신이었으며 학자가 종사하는 문헌직이었던 것이다. 즉 학자사서(Scholar-librarian)였던

것이다.

학자사서의 사적인 근거가 되는 서양의 경우, Alexandria 도서관 사서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학자사서들의 Alexandria 도서관 관장에 대해서 연구해보면 그 임기 순서와 사서 명부가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Michael H. Harris는 "도서관과 관련된 학자들이 실제로 사서였다는 점은 불확실하지만 그들이 도서관에서 활동한 시기와 연관하여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Harris 1984, 39)고 설명하고 있다. 학자사서에 대한 임기순서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Callimachus의 관장직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먼저 Edward Edward(Edward 859, 22), K. J. Beloch(Beloch 1927, 592-599), Elmer D. Johnson(Johnson 1965, 53), E. A. Parsons(Parsons 1967, 160), Afton M. Miner와 A. Garr Cranney(Miner and Cranney 1990, 16), Michael H. Harris(Harris 1991, 39) 등은 Zenodotus 다음에 Callimachus를 제2대 관장으로 그 순위를 매기고 있다. 이러한 관장직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대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상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관장 임기연도에 관해 숫자상의 오차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임기연도를 기술하지 않았다. 또한 관장의 명부를 Aristarchus까지만 나열하였다. 그 이후의 사서명부는 더 불확실하기 때문이며 학자들은 대개 이 Aristarchus까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학자들은 Callimachus가 2대 관장이라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Edward Edward는 Apollonius와 Eratosthenes의 순서를

〈표 1〉 Callimachus를 포함한 Alexandria 도서관장 계보표

순위	연구자	연구자	
		① Elmer D. Johnson Miner & Cranney E. A. Parsons	② Edward Edward
창건자		Demetrius of Phalerum	
1		Zenodotus of Ephesus	
2		Callimachus of Cyrene	Callimachus of Poet
3		Apollonius of Rhodes	Eratosthenes of Cyrene
4		Eratosthenes of Cyrene	Apollonius of Rhodes
5		Aristophanes of Byzantium	Aristonymus
6		Appollonius of Eidograph	
7		Aristarchus of Samothrace	

〈표 1〉의 ①번과 순서가 바뀐 연대표를 작성하였으며 5대 관장으로 Aristonymus(B.C.183~171)라는 학자를 기술하였다.

Afton M. Miner & A. Garr Cranney은 또한 학자사서들이 가정교사도 겸임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었다. 즉, “가정교사 겸 사서는 Zenodotus, Appollonius, Aristarchus이며 가정교사가 아닌 사서로서 일했던 학자는 Eratosthenes, Aristophanes”(Miner and Cramey 1990, 13) 등이다. 이와 같이 학자사서들은 관장직을 맡으면서 왕실의 교사도 겸임했음을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주장과는 반대로 栗野賴之祐(栗野賴之祐 1942, 731-2), L. S. Thompson(Thompson 1979, 9), Anne Holmes(Holmes 1980, 289), Mostafa El-Abbadi(El-Abbadi 1991, 84)는 Callimachus를 관장직에서 제외시켰다.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본바와 같이 학자들은 Callima-

chus가 Alexandria 도서관장을 역임하지 않은 것과 도서관장 순서가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특히 栗野賴之祐는 7대 관장 Cydas, 8대 Onesander, 9대 Ammonius로 나열하며 도서관장 명부를 소개하였다. 〈표 2〉와 〈표 1〉을 비교한다면 창건자 Demetrius와 1대 관장인 Zenodotus는 연구자들이 그 의견을 같이 하였다. 그리고 Callimachus를 빼고는 그 순서가 〈표 1〉의 ①번 학자들의 결과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표 1〉의 ①번 Beloch와 그 외 연구자들의 연대표가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장 임기 연대는 Callimachus를 포함한 Harris의 다수 연구자들의 주장이 더 우세한 가운데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학자사서는 약 BC. 145년 Ptolemaios VIII세인 Euergetes II세가 도서관장직을 군장군 Cydas로 교체하였다. 그러면서 도서관은 점차 군인이나 관료가 관장으로 임명되어 정치적으로 군부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표 2〉 Callimachus를 제외한 Alexandria 도서관장 연대표

순위	연구자	栗野頼之祐
		L. S. Thompson Anne Holmes Mostafa El-Abbadi
창건		Demetrius of Phalerum
1		Zenodotus of Ephesus
2		Apollonius of Rhodes
3		Eratosthenes of Cyrene
4		Aristophanes of Byzantium
5		Apollonius of Eidograph
6		Aristarchus of Samothrace

마 제정기에는 모두 학문연구에 손을 떼고 관장이 명목만을 유지하는 지위로 전락하게 되어 학문기관으로서 점차 쇠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Alexandria 도서관의 사서들은 그들이 지닌 능력이 무엇이었던 간에 서양 도서관사에서 Alexandria 도서관의 학자사서들만큼 훌륭한 명부를 자랑할 수 있는 도서관은 극히 드물 것이다.

4. 장서구축의 과정 및 정책

장서수집은 도서관 설립과 더불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lexandria 도서관은 “예술 및 과학을 총망라한 수집을 목적으로 장서구축에 노력하였지만, 자금 문제나 지리적인 문제보다는 그리스시대의 원고를 수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Thompson 1979, 3-40). 그리스에서 기원전 5세기 이전에는 그 어떤 규모의 독서 대중도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최초의 주요 도서관들은 최초의 주요 필사본 저작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인들의 천재성

의 산물이었다. 그 시기 이전과 수년 이후에도 대다수 백성들은 그 지적인 유산을 유랑 부족이나 이야기꾼들의 입을 통해 전달받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편지의 발송인과 수취인을 위해 편지를 써주고 읽어주었던 공공 사자생(寫字生)과 사자(使者, messenger)는 그 시대의 우편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그리스가 비록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전(口傳)의 시대에서 독서의 시대로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5세기 즈음의 그리스에는 책이 넘쳐 났다.

기원전 5세기인 “페리클레스의 황금기(Golden Age of Pericles)” 동안에는 다수의 개인 장서가 존재했으며, 그 중 일부가 당시의 학자들에게 개방되었다. 아테네의 최초의 공공도서관은 기원전 330년에 아테네의 시민들이 위대한 그리스 극작가인 Aeschylus, Sophocles와 Euripides의 진본을 읽을 수 있는 장소를 갖게 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왜냐하면, 그 극작가들의 비극은 매우 인기가 있었으나, 대중들은 매우 부실한 사본들만 이용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역사가인 Polybius에 따르면, 기원전

3세기까지는, 아테네에 매우 많은 공공 및 사립 도서관이 존재했는데, 시칠리아섬 출신의 역사가 Timaeus는 그 도서관에서 50년간이나 연구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이 그 위대성을 성취한 시기는 Ptolemy Philadelphus 시대에 이르러서이다. 책을 수집하려는 Ptolemaios의 열정은 엄청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선이 항구에 닿으면 우선적으로 화물 중에 필사본이 있는지 묻고서, 선적되어 있으면 원본은 도서관에 소장시키고 정서(淨書)된 복사본은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아테네로부터 그리스 극작가의 희곡들의 공식 극사본을 빌리면서, 그 회수를 보증하는 보증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그는 그 보증금을 단념하고 원본은 알렉산드리아에 남겨놓고 복사본을 아테네에 돌려주었다. 알렉산드리아의 소장품은 그리스의 필사본뿐만 아니라 이디오피아, 페르시아, 히브리, 북부 인도의 원본들까지 이르렀다. 왕실의 언급 지원을 받은 학자들은 필사 작업, 필사의 정확도 확인 및 도서관을 '고대 세계의 영광(The Glory of the Ancient World)'으로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소장품이 넘쳐나게 되어 아주 중요한 제1 도서관 이외에 제2의 도서관이 『Jupiter Serapis』 사원에 확장 건립되었다. 불행하게도 제1 도서관은 기원전 47년에 Julius Caesar의 도시 정복 시 시가전 와중에 화재로 소실되고 말았고, 그래서 『Serapum』이 주 도서관이 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서관 이야기는 Strabo가 언급 한 바대로 고대 세계의 도서관 영욕의 좋은 예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서거 후 그의 장서는 그의 제자 Theophrastus에게 전해졌고,

그는 35년간 책임자로서 그의 스승의 소요 학파를 이끌었다. 기원전 287년 Theophrastus가 죽자, 그 장서는 그의 제자 Nileus에게 당시 전해졌고, 그는 그것들이 페르가몬의 도서관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실에 은닉하였다. 그곳에서 장서는 150년 이상 습기와 벌레 속에 남아 있었고, 이후 기원전 100년 아테네의 거부 Apellicon of Teos에게 매도되었다. 새 주인은 오랜 세월 지하실에서 손상된 책들을 복구하도록 하였으나, Apellicon의 사망 직후, 아테네가 Sulla 장군에게 함락되자 곧 로마의 황궁으로 반출되었다. Cicero의 동료 학자 Tyrannio와 Andronicus of Rhodes 두 사서가 지속적으로 그 필사본을 복원하였고 주제에 따라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정리하였다.

도서관의 규모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Prolegomena』와 『History of Ammianus』를 위해 Tzetzes가 남긴 유일한 근거인 'Aristeas의 서한'에서 찾아볼 수 있다. Demetrius 당시 도서관은 이미 200,000 두루마리를 소장하였으며, 마지막에는 500,000 두루마리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Tzetzes는 그 왕궁 도서관들은 400,000만 권의 '합성물'과 90,000권의 순수물로 이루어진 490,000권을 소장한 것으로 주장하였다. Ammianus는 결국에는 전체 장서수가 700,000만 권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은 Aulus Gellius가 통계 낸 숫자인데, Seville의 Isidore와 다른 이들에 의해서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Aristeas의 서한에서 언급했던 두 가지의 합계들을 한데 합친 것으로 추정된다. 도서관이 수 십만 개의 두루마리들을 저장하고 있었던 것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모든 믿을만한 당시의 증

거가 검토되었을 때, 그 총 권수를 700,000권이 라고 한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거나 무시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입증되었다.

전술한 바처럼 Alexandria 도서관장서 구축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요학파로 알려진 학원 또는 철학학교를 설립하였다. 그의 도서관에 소장된 수백 권의 도서는 문학생들이 기증하거나 구입한 것으로 그의 학생들과 친구들도 함께 이용하였다. 그가 사망하자 이 도서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 후계자인 Theophrastus에게 인계되었고 Theophrastus는 다시 제자 Neleus에게 유증 되었다. Neleus의 후세들은 이 도서들을 잘 관리하였고, Pergamum의 Attalid의 왕들이 약탈하지 못하도록 땅에 묻어 두었다. 이것은 나중에 Teos의 Apellicon에게 팔렸고, 그의 죽음 후에 로마의 장군 Sulla가 아테네를 정복해 이 장서를 로마에 옮겼으며, 이것은 후에 전제 군주 Tyrannion도서관의 한 부분이 되었다.

다른 이야기로는 Ptolemaios II세가 Neleus로부터 직접 Aristoteles의 도서를 구입하여 Alexandria 도서관의 한 부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언급한 내용을 근거로 Alexandria 도서관장서 중 일부는 Aristoteles의 도서관으로부터 수집된 것으로 이는 성립배경과 장서 모두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서를 기본으로 Alexandria 도서관은 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자료수집에 노력하였다. 또한 Ptolemaios왕조의 역대 왕들은 Alexandria 도서관이 헬레니즘 문명의 요람이 되게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도서관을 지원했다. 장서의 수집방법을

통해서 보면 그 열의를 짐작할 수 있다. 많은 서기를 고용하여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필사하는 것은 기본이었으며, 인근 나라로 서기들을 파견하여 원본을 모으는 것도 Assurbanipal 시대와 유사하였지만 그 방법 면에서는 더욱 적극적이었다.

4. 1 수서 정책

Alexandria 도서관은 세계 전역으로부터 문헌을 수집하고 또 그렇게 해서 소장한 것들을 보존하려는 노력 덕분에 사상최초로 진정한 '세계적 도서관'이 구축되었다. 또한 당대의 가장 뛰어난 철학자·학자·연구자들을 끌어들이 헬레니즘 문명의 산실로 역사에 공헌하였다. 이는 또한 학자사서의 개념을 싹트게 하였다. Alexandria도서관의 노력은 문화유산의 총체, 즉 철학적 사상의 주류와 그리스 세계의 지식체계를 도서관에 축적하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이용하게 하였다. 학자들의 공통 임무는 Homeros로 시작되는 고전 그리스 저술가의 서적을 필사하고 교정을 가하여 편집하는 업무였다. 또한 히브리어·중동 제국어 등의 서적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 하나였다. 그러므로 Bruchetium은 학자들의 집회장소가 되었고 학문연구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 도서관이 된 것이다.

Alexandria 도서관 수서 정책은 Galen(A.D. 129~199)에 의한 두 가지 일화로서 좀더 자세히 설명되어질 수 있다(Platthy 1968, 118-9). 첫 번째 일화는 Alexandria 항구에 도착한 모든 배에서 검색된 도서들은 입수되고 복사된

후 복사본은 소유자에게 보내졌다. 그리고 원본은 'ek ploion(from the ships)'라는 특정한 라벨을 붙인 후 도서관에 보관되었다. 이러한 Ptolemaios III세의 명령은 도서관 장서구축에 많은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두서없는 수집은 도서관 소장 장서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결과를 야기시켰다. 또 다른 일화로서 Ptolemaios III세는 15 탈렌트(talents: 그리스 등의 고대 무게 또는 화폐단위. 이 금액은 약 미화 4백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이다)를 맡기고 Aeschylus(BC. 525~456), Sophocles(BC. 496~406), Euripides(BC. 484/80~406)의 그리스 3대 비극시인의 작품을 빌려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예치금을 포기하고 작품의 복사본만 되돌려 보내고 원본은 소장함으로써 아테네인들을 속여서 빼앗기까지 한 책에 대한 열정을 보였다.

이렇게 수집된 문헌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리되어 이후의 이용을 위해 보관되었다. 만약 이러한 작업을 수서 시스템이라 부른다면 Alexandria 도서관은 모든 주제에 대한 모든 도서들을 취사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Alexandria 도서관의 수서 정책은 여러 도시들의 모든 필사본 그리고 Homer와 같은 고대 그리스 저자들의 문화적인 비평 도서들을 획득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단을 동원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Alexandria 도서관 자료수집은 "사전, 용어색인, 백과사전과 같은 기본적인 탐색도구의 생성과 원문해석, 원전비평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했다." (Shubert 1993, 143). 즉, 자료의 편집이나 비평문헌 등 사서들의 주요 업

무에 이용될 수 있는 2차 자료를 생산하는 문헌적 변형들을 나타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리된 문헌목록이 Callimachus가 편찬한 분류·목록형태인 Pinakes로 탄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수서 정책을 뒷받침하듯이 Alexandria 도서관은 Ptolemaios I세 시대에 5만 권의 파피루스 책을 수집했고 Ptolemaios II, III세 시대에 걸쳐 소장 장서수가 49만 권으로 증가하였다. J. Tzetzis는 Callimachus 사료를 인용하여 Alexandria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수에 대하여 "Serapeum 도서관은 42,800권, Bruchesium 도서관 49,000권을 합하여 합계 532,800권" (Blum 1991, 106-7)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도 Alexandria 도서관의 장서수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다양하다. 예를 들면, "54,800권(Epiphanos), 70,000권(Isidors Hisp.), 100,000권(Euscbios, Chron. 등), 20,000권(Aristeas et Josephos), 40,000권(Seneca et Oroius), 700,000권(Ammianus Marcellus et A. Gellius)" (栗野賴之祐 1952, 4) 등이다. 이러한 장서 추정수치는 대체적으로 10만 권에서 70만 권까지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로는 대단한 소장 장서수라고 할 수 있다.

Ptolemaios 왕조의 서적 수집광은, 특히 Soter, Philadelphus와 Euergetes I세는, 도서관에 전례가 없는 인물들이다. 130년에 알렉산드리아의 강력한 경쟁자인 도서관의 근거지였던 Pergamum에서 태어난 Galen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늘 유행했었던 많은 이야기들에 대한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Ptolemaios 왕조의 왕들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원고들을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최고급의 사본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단호했었다. 때로는 그들이 아테네의 Attic의 비극 배우들의 공식 사본을 빌리기도 했는데, 그 사본들을 안전하게 되돌려주는 대가로 15탈란트를 지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위탁금을 손해보는 대신에 그 자체를 BC. 330년의 Lycurgus의 법령에 따라 만들어진 역사적 사본으로 보호하면서, 그것들을 최상의 양피지로 만들어진 복사본으로 되돌려 보내기도 하였다. Galen은 우리에게 남은 책들의 개작물을 담고 있는 위조 원고들이나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위조인 작품들을 매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위조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있다. 전문적 지식, 예민한 두뇌, 많은 시간들이 종종 이런 위조자들을 폭로한 필요성을 만든다. 왜냐하면 믿을만한 것이나 가짜의 구절을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최근의 주석자들의 경우처럼 놀라운 독창력으로 짜 맞추었기 때문이다.

Manetho는 역사가들에게 정상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 근원들로부터 걸작(*magnum opus*)을 수집하였고 전해진다(Staikos 2000, 73). 사원에 보관되어 있는 파피루스, 공무상의 파라호 기록들, 문학 작품과 다른 덜 알려진 종교적, 점성술, 수학적인 논문들이 함께 모여 이집트 역사에 대해 비길 데 없는 정보의 보고를 구성하였다. 어느 경우에도 호기심 많은 그리스인들의 마음이 중동의 도서관에 저장되어 있는 다량의 문서로 된 자료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자료들은 전통적으로 탐구되어 왔으며 피타고라스, 솔론, 헤로도토스, 플라톤과 같은 그리스 지식인들의 방문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이런 가정은 Hermippus가 모았던 Zoroaster의 페르시아

시행들의 요약과 관련이 있는 Georgios Synkellos와 Tzetzes의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하나의 명백한 사실은 Ptolemaios왕 Soter와 Philadephus 통치시기에 외국 책들을 번역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착수되어 시작된 것이 70인역 성서의 그리스어로의 번역이다.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집트의 공문서에서 연표를 번역했다는 Synkellos의 진술은 프톨레마이오스왕의 통치 초기에 라틴 문학이 도서관을 대표한다는 Tzetzes의 진술이 그랬던 것처럼, 강력하게 논쟁이 되어 왔다. 또한 라틴 문학 작품들이 Ptolemaios왕조의 통치 기간의 끝 무렵에 알렉산드리아에 알려졌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잡아 추측해도 BC. 3세기에 그런 일치가 사실이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것이다.

BC. 1세기 이전의 그리스어 작품이 아직 현존하고 있다면- Wilamowitz가 고대 문학작품의 5분의 1만이 현대까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어림하였다.- '세계 도서관'에 대한 이상적 규모에 대한 정의는 아마도 오늘날에 그런 것처럼 유토피아적이 아니었을 지도 모른다. 예수의 시대에서부터 그리스 문학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부족함을 보여주는 한 작품은 238년 이후에 30권으로 완성시켰고 10세기에 15권으로 축소했었던 『*Deipnosophistai of Athenaeus*』의 것이다. 그 안에서 Athenaeus는 지금은 잃어버린 700명의 작가 이름과 1,500개이상의 작품 제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것의 근원지를 언급하고 있는 많은 책들이 더 좋은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임을 가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구나, Athenaeus는 알렉산드리아로부터 그의 정보원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사람이 Athenaeus가 유일한 근거로 언급하고 있는 중세와 새로운 희극작가들의 총 작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게 한다. 그리스어로 된 거대한 문학 작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 또 다른 작가는 우리가 그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기보다 3세기 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인물은 Galen이다. 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에 매우 예민한 다작 작가인 Galen은 그 자신의 작품들에 대한 장서목록을 수집했다. 그것에서 그는 그의 작품들은 500개의 파피루스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Carneades의 제자이며, 학회에서 그의 계승자인, Clitarchus는 400개의 작품들을 썼다고 전해지지만, 그것들이 얼마의 두루마리로 이루어져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문학과 본문연구의 확장은 비평 문서들의 범람을 낳았다. 그 비평 문서들의 범람은 역으로 더 깊은 연구의 유행을 낳았다. Callimachus는 적어도 2,000개의 두루마리로 구성된 800개 정도의 작품들을 썼고, 그의 Pinakes의 120 두루마리는 아리스토파네스의 비잔틴 책인 『On the Pinakes of Callimachus』와 같은 비평 문학에 있어 신천지를 개척했다. 모든 것 중 가장 놀라운 통계치는 그의 끈기 있는 근면과 성격 때문에 박물관의 학자들이 Chalkenteros라고 별명을 지어준 BC.1세기의 문학 학자인, Didymus와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도 전부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작품들을 썼기 때문이다. 그의 총 작품은 3,500에서 4,000 두루마리 사이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세계 도서관'에서 많은 두루마리 중 그의 작품을 찾는 것은 쉽다. 특히 매우 많이 복제된 제목으로 되어있는 것은

근거들이 제시되어 있는 숫자를 초과하기도 했다.

그들의 규모는 물론이고, 어떤 증거도 우리에게 Ptolemaios왕조의 시대에서 사립 도서관의 존재와 관련되어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Strabo의 도서관에 관한 기록에서부터 활력을 주는 사실 도서관과 관련된 증인을 만날 수 있다. BC. 30년 전, 로마에 있는 그리스인 노예였던 Tyrannio가 30,000 두루마리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과 관련되어 기록을 남긴 사람은 누구인가? 혹은 실질적으로 『Serenus Sammonicus』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하지 않은 로마인이 62,000 만큼의 두루마리를 소장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의 도서관을 3세기에 황제 Gordian 2세에게 위탁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인가? 혹은 Livius Lamesius의 도서관이 그것의 부유함으로 명성이 있는 어떤 다른 도서관들 보다 더 크고 더 좋다는 내용의 것인가? 이런 숫자들은 사람이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세계적 도서관'이 되고자 열망했고, 상당히 많은 책들의 2개 혹은 더 많은 사본들을 소장했던 알렉산드리아인의 도서관에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 이렇듯 Ptolemaios왕조가 도서관에 많은 양의 재정을 투자하여 5세기 동안 건립된 것이다.

이렇게 수집된 장서들은 도서관의 관장들과 그들의 보조자들이 세 가지 주 카테고리 분류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1) 그들의 출처와 관계없이 그리스어로 된 문학 작품. (2) 유용한 정보들을 모을 수 있었던 매일의 서신 왕래와 같은 잡다한 문서들. (3) 다른 언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작품들이다(Staikos 2000, 70-73).

(1) 도서관 조직자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들 중 하나는 학자들이 그들의 입장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고, 미래의 독자들의 방대한 양의 책에 대해서 별 어려움 없이 그 근원에 도달하는 것을 도와줄 방법을 고안해 내는 것이었다. 본문들은 종종 전면적인 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사본들은 역사적인 대조에 유용한 4세기 말에 대한 원문의 상태에 대하여 의심할 수 없다. Lycurgus가 그 상태들이 매우 나쁜 것을 발견해서 새로 만들어질 고대 그리스 비극들에 대한 새로운 공식 문서들을 주문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도서관의 관장들은 그 사본들은 출처 도시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Chian, the Sinopic, the Argive 등등의 호메로스 작품이 있었다. '사람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은 원고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소유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그에 의해 교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of Zenodotus'라고 꼬리표가 붙은 사본들이 있고, 'Mnemon of Side' 의해 교정된'이라고 꼬리표가 붙은 사본들이 있는 것이다.

본문의 교정은 새로운 사본들을 단들고자 하는 이유뿐 만은 아니다. 비잔틴의 아리스토파네스에 의해 소개된 그리스어로 된 작품들에서의 단어 사이의 공간, 악센트, 발음기호와 구두점이 있는 혁신들은 그리스 문학 전체에 있어서 새로이 쓰여지는 것을 필요하게 해 주었고, 사본들에 있어서는 더욱 편할 뿐만 아니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 준다.

(2) Galen은 우리에게 Ptolemaios왕들의 한 명이 강력한 경쟁자인 Pergamum에 대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매우 단호해서 그는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배들은 사정 팀에 의해서 조사 받아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 사정관들은 그들이 찾아낸 모든 책들(선장의 소지품들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가방에 들어있는 책에도 법률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의 가치를 평가하고, 도서관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은 몰수하였으며 그 원본의 주인에게는 사본을 보내준다. '배에서 나온 책들'로 그들이 불렀던 것처럼, 본 도서관으로 바로 운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으로 더미째로 따로 챙겨두는 공간에 쌓아놓았다. 아마도 도서관의 직원들에 의해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일 것이다.

Galen의 진술은 많은 의문을 일으키고 있으며, 짐작하기에 범위가 너무 넓은 큰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먼저, 우리는 배의 출발을 지연시키지 않기에 충분히 빠른 속도로 책을 배길 수 있는 속기로 필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함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속기로 책을 베끼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항구는 하루에 1척의 배 이상이 들어오는 매우 바쁜 곳이기 때문이다. '배에서 나오는 책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해 두는 목적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수집도서들은 그것들이 감정되고 편집될 때까지 기존의 도서들과 분리시켜 놓기 위해서, '순수물'한 작품으로만 이루어진' 파피루스를 '혼합물'로부터 분류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책의 출처에 따라 꼬리표를 달기 위해서이다. Galen은 도서관이 단지 문학작품에만 관심이 있는지, 그것은 알렉산드리아인들의 박식한 지식을 더 넓힐 수 있도록 도울지도

모르는 일기 형태나 여행일지나 지도, 차트, 편지나 그 밖의 다른 형태들로 쓰여진 문서들과 다양한 Pinakes안에 분류된 책들로 보관되었던 광범위한 원고들을 보관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3) 중동부 민족들의 문학이나 다른 작품들이 조직적으로 수집되고 번역되었다는 Ptolemaios 시대로부터 뚜렷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계획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들의 과제인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알기 위해서 프톨레마이오스 1세와 Antiochus 1세의 열정은 그들을 위해 Manetho와 Berossus가 각자 쓴 역사적 사실로부터 명백하게 드러난다.

5.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의 파괴상

Julius Caesar가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포위 당했을 때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함에 불을 질렀던 사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불행히도 바람에 불길은 그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번져갔다. 불길은 항구에 인접해 있던 가옥들에 옮겨 붙으면서 브루키온 지역의 밀 창고들과 그 유명한 도서관에 크나큰 손실을 입혔다. 확인되지 않는 어떤 역사 기록자들은 그 때 불탄 장서는 40만 권뿐이며, 다른 많은 서책들은 화재에서 무난히 건져낼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나머지 페르가몬 도서관의 서책 20만 권이 안토니우스를 통해 클레오파트라에게 건네졌고, 그로써 새로운 세라피스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었으며, 얼마 후 그곳에

는 많은 서책들이 소장되게 되었다. 하지만 로마 황제들의 치하에서 일어난 계속되는 정변의 와중에 도서관의 책들은 약탈되다가 복구되어지곤 하였다. 결국 그 도서관의 건물은 650년경에 파괴되었다. 사라센의 장군 Amr는 Caliph Omar의 명에 따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장서들을 이 도시에 있는 대중목욕탕에 채워 넣으라는 지시를 내렸고, 6개월 동안 장서들은 욕탕의 땀감으로 사용되었다.

Aristeas의 서한이 그 도서관의 파괴의 배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역사적인 이면은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도서관이 손실되었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방식은, 프톨레마이오스 11세 Auletes와 BC. 47년에 Achilles의 군대에 의해 Julius Caesar의 공격의 결과이든, 642년 Caliph Omar의 명령에 의한 것이든 설득력은 없다.

5. 1 Julius Caesar의 파괴설

Julius Caesar는 BC. 48년에 Cleopatra 7세의 동생인, 어린 Ptolemaios 12세 왕의 초청으로 알렉산드리아로 갔다. Ptolemaios II세의 어린 두 아이들이고, 그들 아버지의 뒤를 이은 공동 통치자로서 Ptolemaios와 Cleopatra 사이의 논쟁에의 그의 연루는 Caesar에 대항하여 음모를 꾸미던 그 어린 왕의 전능한 전략가인 Achilles와 환관인 Pothinus등의 프톨레마이오스 측근에 대한 열광을 낳았다. 그들의 은밀한 계획은 시작 단계에서 좌절되었다. Pothinus는 투옥되어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Achilles는 탈출에 성공하여 강력한 군대(많은 로마인 탈주자들을 포함하는)를 일으켰고, 육지와 바

다 양면으로 모두 Caesar를 성안에 포위하였다.

이에 Caesar는 강력하게 저항하였고, 계속해서 반격을 시도하였다. 바다 성벽의 꼭대기에서 그곳에 정박하고 있는 Ptolemaios의 60척의 배를 불질렀던 그 항구를 바라보면서, 그 화재는 빠르게 조선소의 설비들과 강가에 있는 건물들로 번져갔고, 온전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었던 40,000만여 권의 책들이 소실되었다. 그 불에 대하여 썼던 그 시대의 유일한 역사가는 당시에 12살이었던, Livy였는데, 이것은 별 생각없이 언급된 듯 하다. 그의 진술은 소실되었던 40,000개의 두루마리가 Dio Cassius와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얻었던 Seneca에 의해 보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거는 Caesar 시대에 도서관이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Livy가 개인적으로 책을 점검하고, 사본에 대한 기준이 완벽했다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처음에는,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었던 책에 대한 묘사는 그들의 순서보다도 그것들을 만든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관한 것이 언급되어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Caesar가 첫 번째 공공의 2개국어 사용의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귀한 책들을 외국으로 보낼 것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제안은 그것들이 도서관이 내놓을 수 있었던 복제된 사본이었던, Caesar 명령에 의한 특별한 새 사본이었든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의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의 책 무역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려진 바가 없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알렉산드리아 중심지가 아랍에 의해 점령당했을 때, 고대 시대와 바로 지금 17세기를 아울

러, 파피루스 두루마리 생산과 수출에 있어서 유일한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무역이 파피루스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무튼 도서관이 미리 조직적으로 취득되지 않았다면, 소장책으로부터 발췌했음에도 불구하고, 4만개의 두루마리들은 전체 중 매우 작은 부분을 상징해서 그들의 이동의 그것의 성격과 존속과 미래의 발달에 있어 진지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다. 내 의견으로는, 대체로, 많은 책들이 소실되었던 이유는 전문가들이 도서관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직무상의 권위에 의해 행해졌던 배열 때문인 듯하다. 도서관이 완전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대안이나 도서관의 근본적 토대에 속해있었던 얼마간의 책의 수집은 알렉산드리아가 아랍에 의해 함락되었던, 7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즐거운 이야기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Emir 'Amr ibn al-'가 알렉산드리아를 함락시켰을 때, 그는 Caliph Omar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서방의 위대한 도시를 함락시켰다. 나는 이 가치와 고귀함을 어떻게 묘사해야 할 지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4,000개의 별장, 4,000개의 공중 목욕탕, 100개의 극장과 놀이 공간, 12,000개의 식료품 가게와 40,000명의 유대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다. 도시는 협정 없이 군대의 힘으로 장악되었다. 충실한 신봉자들은 승리의 기쁨을 즐기려 기다릴 수 없다'. 그러나 Amr는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를 약탈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 도시를 되찾으려는 비잔틴 군사들의 반복되는 시도에도 복수심을 자극 받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그는 알렉산드리아를 '매춘부의 집처럼 모든 사

람에게 열겠다는, 도시의 벽들을 허물기 위해 돌아다니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가 그의 군대에게 강탈하는 것을 그만두도록 설득했던 그 현장에 그는 그가 『Mosque of Clemency』라고 부르는 회교 사원을 지었다.

5. 2 Caliph Omar의 파괴설

알렉산드리아가 'Amr'에게 함락되었을 때, 그 저명한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John Philoponus는 여전히 고령의 나이에도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Ibn al-Kifti라는 기록가에 의해서 알 수 있게 된다. 'Amr' 지식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열망을 가졌던, 심지어 늙은 그리스 학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 Orthodox Church 안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었던 교리에 관련된 것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들의 만남 중 하나에서 Philoponus가 책들을 왕실의 금고에 자물쇠를 채워서 보관하는 것은 곤란하고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Amr에게 그것을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놓아두라고 요청했다. Amr는 염려하며 그의 말들 들었고, Philoponus에게 그는 그것에 대해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에게 도서관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했다. Philoponus는 그에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여전히 잘 알려져 있었고, 정확하다고 믿어지고 있었던, Aristeas의 서한에 근거하여 말해 주었다. 그러자, 준법적이고 이슬람교도로 훈련되어 있는 Amr은 그 요청을 Caliph Omar에게 말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는 이 약속을 수행했지만, Omar의 답장이 도착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다. 이것은

Amr에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역사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는 약간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전설은 이슬람에 투항했던 그리스인이 Philoponus가 언급했었던 수집품은 Prophet가 탄생하기 전에 소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Amr'은 진실을 추구하기로 결정하고 Philoponus와 유대인 의사와 Philaretus라는 이름의 역사가와 함께 Serapis 사원의 폐허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보조 도서관의 약간의 유물과 이교도 사원의 유물을 발견하였다.

고등 교육을 받은, Philaretus는 불을 내서 그곳을 파괴했다며 Julius Caesar를 비난했던, Ammianus Mardellinus에 의해서 소문이 났던 부정확한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따라 전설에 근거하여 긴 강연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야기는 Orosius같은 진실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훗날의 작가들에게로 옮겨갔다. 아랍인 기록가는 우리에게 Amr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명성에 어울리는 책 수집품을 찾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찾았다면 책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마침내 전달자가 Caliph Omar의 답장을 가지고 도착했다.

Omar의 의견은 간결했고, 어떤 논쟁의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코란의 그 자체로서의 가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였다. "책의 내용이 알라신의 책에 따른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알라신의 책이 더 충분하기 때문이다. 만약 반대로, 그것들이 알라신의 책과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

다. 그들의 파괴의 결과이다” 라고 말하였다. 물론, Amr Caliph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제외한 모든 책들은 물을 담히는데 연료로 사용하도록 알렉산드리아의 공중 목욕탕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이 모두 타서 없어지는 데 6개월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사건의 변형에 대한 진실성에 있어서 John Philoponus의 연루가 필수적이라면, 그가 알렉산드리아가 함락되기 몇 십 해전에 죽었기 때문에, 전 이야기가 허구임은 분명하다.

BC.47년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소실과 642년 Caliph의 명령에 따른 그곳 책들의 소실은 많은 전설과 추측들이 만들어 졌던 두 가지의 줄거리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기독교의 지배와 필연적인 고전 연구의 공백에 의해, 서적 애호적 전통에 변동이 지적 세계에 있어서 일어났고 파피루스 두루마리의 계승자로서의 사본의 등장은 우리가 어떤 강력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진실을 폭로하고 싶어한다면, 우리는 신화와 전통의 진실로부터의 다른 방향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Alexandria 도서관의 파괴·소멸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주로 세 단계로 구분짓고 있는데(Desroches 1983, 25-7),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원전 47년 Julius Caesar의 공격으로 황실내의 화재로 인해 도서관의 많은 장서가 소실되었다. 이 전쟁 중에 “40만 권의 책을 유실하였지만, 그 당시 도서관에 소장된 많은 장서 수를 생각하면 거의 보존”(Desroches 1983, 25-7)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Antony가 『Pergamon 도서관』에 소장된 20만 권의 장서를 Cleopatra에게 주어 부분적인

보상”(Holmes 1980, 291-2)으로 장서는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 Pergamon 장서가 『Serapeum 도서관』에 이관되면서 『Serapeum 도서관』은 크게 확장되었다. 이렇게 장서의 측면에서 엄격히 말하면 Alexandria 도서관의 소멸이라고 일컬을 수 없을 것이다. 그 후 AD. 270년경 로마 황제 Aurelian에 의해 『Bruchesium 도서관』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두 번째, 기독교 탄생 이후 Alexandria 도서관 역사는 더욱 감춰져 버리게 된다. 4세기경에는 기독교 문화가 중요한 힘을 갖게 되었으며, Theodosius(346~395)는 이교도를 붕괴시키라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Alexandria 도서관과 박물관은 이교 사상의 가장 좋은 본보기로서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상형문자와 이집트 여신들이 이교도 배척의 최초 목표가 된 것이다. 결국 AD. 391년에 『Serapeum 도서관』은 기독교 집단에 의해 침해당했으며, 사원은 교회와 수도원으로 바뀌었다. 이때 이후로 Alexandria는 학문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다. 이것이 실질적인 Alexandria 도서관 소멸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D. 642년경 Omar장군 지휘하에 Muslim들의 침공으로 남아있던 Alexandria 도서관 일부분마저도 망각의 늪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Omar는 Alexandria 시민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를 원했으며 Alexandria 도서관을 파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을 사용하였다.

만약 Alexandria 도서관이 코란에 적대적인 책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파괴되어야 한다.

만약 Alexandria 도서관이 코란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책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불필요하므로 따라서 파괴되어야 한다.

Alexandria 도서관의 책은 코란의 가르침과 적대적이거나 동조적이다.

고로 Alexandria 도서관은 파괴되어야 한다(Staikos 2000, 80).

이와 같이 교조주의적 3단 논법을 통한 Omar의 명령으로 “도서관 장서는 Alexandria 대중 목욕탕의 연료로 사용했고 6개월 동안이나 열기를 유지”(Parsons 1967, 371)했으며, 이후 Alexandria에는 다시 도서관 부흥은 없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최근 UNESCO에 의한 인류문화 유산의 복원차원에서 ‘New Bibliotheca Alexandrina’ 운동으로 복원되었다.

이설(異說)에 따르면 Caesar의 군대가 도서관에서 책을 가져가려 하자 알렉산드라의 시민들이 그 반출을 막으려 항구의 배에 불을 질렀고, 그 불이 도시와 도서관으로 옮겨 붙었다는 설도 있다. Augustus Caesar의 환심을 사려던 Cleopatra가 알렉산드리아의 책들을 Pergamum에 있는 도서관으로 옮기려고 했다고도 한다. 한 때는 이집트인들이 도서관의 경쟁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괴루스의 선적을 금했다는 이야기도 전해 온다. 알렉산드리아가 당대 최고의 도서관이었고 한참 후에야 그와 대등한 규모의 도서관이 출현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 도서관이 소장했던 두루마리의 수는 백만 권 정도에 이르렀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치가 않다. 그 소실에 관해서도 여러 설이 있

는데, 일설에는 Patriarch Theophilus의 명령으로 서기 391년 파괴되었다고도 하는 설도 있다.

James W. Thompson은 그의 고대 도서관사에 관한 논문에서 초기 기독교도들은 이슬람교도들 만큼이나 광신적이었으며 도서관을 파괴할 일을 능히 할 사람들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세기 동안 도서관은 오랫동안 있어왔던 일련의 절취와 약탈행위로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남은 장서는 뿔뿔이 흩어지고 분실되었다. 단지 도서관의 파괴와 함께 사라진 고대 세계의 지식과 후대가 결코 향유하지 못할 풍요로운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 추정할 뿐이다.

소아시아(Asia Minor)의 북서쪽에 위치한 페르가몬의 Eumenes II(BC.197~158)세는 아테네 사원 부근에 고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도서관을 건립했다고 하는데, 이는 단지 19세기 고고학자들의 탐사를 통해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도서관 건물 잔해의 발견은 다른 도서관 건물의 잔재를 확인하는데 일조했지만, 그 소장 장서에 대해서는 단지 추정에 의존할 뿐이다. 그 도서관 건물은 하나의 트인 진열장과 2층으로 된 주랑(柱廊)식 현관과 4개의 부속실로 되어 있다. 이는 열린 공간에 도서관을 건립한 건축가의 고대의 건축 개념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건축양식은 오늘날에도 명백하게 적용되고 있다. 전통에 따라, Antony가 알렉산드리아의 풍요를 더할 목적으로 그 장서를 Cleopatra에게 기증함으로써 도서관은 그 목적을 이루었다.

6. 결 론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Alexandria 도서관의 흥망성쇠를 정보문화사 측면에서 규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알렉산드리아 대 도서관 설립목적은 '세계도서관'을 구축하려는데 있었다. 이는 지식자원을 기본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자는데 있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Alexandria 도서관 설립에 관해 Demetrius의 제안을 Ptolemaios I세가 수용한 것은 단순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발전에 적합한 정책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왕들에게 있어서 '지식은 곧 국력'으로 인식하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둘째, Ptolemaios I세가 그의 업적을 위한 길잡이를 발견하여 박물관과 부속 도서관을 조직하게 된 것은 "Aristoteles의 Lyceum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Aristoteles와 Theophrastos의 교육으로부터 형성되었다. Alexandria 도서관은 Aristoteles학파의 많은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

2) Alexandria 대 도서관 창립 연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점이 많다. Alexandria 도서관의 창립연대는 대략 BC. 290년경부터 BC. 240년경까지의 근 50년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대략적인 범위를 나타낸 것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Alexandria 도서관은 Demetrius가 도서관에 관계한 BC. 290년경에 설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쇠락은 650년경에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추측된다.

3) 『Museion』은 연구와 교수를 겸하도록 Lyceum을 본 따 건축되었으나 규모는 훨씬 장대했다. 『Museion』에는 약 50만 권의 장서가 있는 도서관과 100명의 교수가 배치되어 국가에서 봉급을 받았다. 『Museion』은 성역과 같은 의미로서 그리스어 'Mousa'의 영어형 'Muse'이며 'Muse신들의 관(館)'인 것이다. 여기서 'Muse'는 인간의 모든 지적활동인 학술과 예술을 담당하는 그리스 여신의 총칭이다. 이것이 오늘날 『Museum』의 어원이 되었다. 현대의 『Museum』은 박물관, 미술관을 의미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학문 연구소'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근대까지만 해도 도서관 명칭에 박물관이라는 명칭이 함께 사용되어왔다. 따라서 Alexandria 도서관의 최초는 『Museion』의 자료실과 같은 형태로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자료실의 형태에서 시작한 Alexandria 도서관은 "궁전, 『Museion』과 묘(廟) 등을 총합하여 왕궁을 의미하는 'Bruchium'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프톨레마이오스는 도서관에 대한 애착이 나중에 또 하나의 도서관 『Serapeum』을 설립하게 된다. 따라서 Alexandria 대 도서관은 사실상 Bruchium과 Serapeum 자매 도서관의 총칭인 것이다.

4) Alexandria 도서관의 파괴 소멸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주로 세 단계로 구분짓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원전 47년 Julius Caesar의 공격으로 황실내의 화재로 인해 도서관의 많은 장서가 소실되었다. 두 번째, 기독교 탄생이후 Alexandria 도서관 역사는 더욱 감춰져 버리게 된다. 4세기경에는 기독교 문화

가 중요한 힘을 갖게 되었으며, Theodosius (346~395)는 이교도를 붕괴시키라는 법령을 공포하였다. Alexandria 도서관과 박물관은 이교 사상의 가장 좋은 본보기로서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상형문자와 이집트 여신들이 이교도 배척의 최초 목표가 된 것이다. 결국 AD. 391년에 『Serapeum 도서관』은 기독교 집단에 의해 침해당했으며, 사원은 교회와 수도원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AD. 642년경 Omar장군 지휘하에 Muslim들의 침공으로 남아있던 Alexandria 도서관 일부분마저도 망각의 늪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Omar는 Alexandria 시민들을 이슬람으로 거종시키기를 원했으며 Alexandria 도서관을 파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단 논법을 사용하여 망각의 늪으로 사라지게 할 수밖에 없었다.

5) Alexandria 도서관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리스 문학의 전반적인 서지류의 편찬으로서 국가 서지의 편찬과 둘째, 당시의 정리되지 않은 문헌들을 넓은 장소에 저장하고, 참고하기에 쉽도록 두루마리를 적당한 표준적인 형태로 편집하는 업무이다. 이러한 편집업무는 다양한 주제 전문가들에게 맡겨졌다. 그것은 문헌의 개정이 아니라 두루마리의 표준형태로 저장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길이의 '도서'를 배열하는 것이다.

6) 『Museion 도서관』의 학술연구에서 특히 문법학적 연구활동의 번성기는 소요학파인 Demetrius가 이집트에 입성한 약 기원전 297년부터 Ptolemaios VIII세의 학자 추방사건(BC.

145년)까지 약 150년간 이루어진다. 당시 Alexandria도서관 역대 관장들은 각각의 시대를 대표하는 학자로서 도서관장을 중심으로 여러 석학이 모여 각 시대에 상응하는 특징 있는 학풍을 만들었다. 또한 이 학자들은 경우에 따라 '왕실의 교사'라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학자사서'이면서 '주제전문사서' 기능까지 수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대학도서관 측면에서 보면 '교수이면서 사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오래전의 '전문직 사서상'을 볼 수 있다. 학자사서와 전문직이라는 개념은 이대부터 기원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러한 연구 학풍으로 인해 '문헌학'이 발생된 것이다.

7) Alexandria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수에 대하여 Serapeum 도서관은 42,800만 권, Bruchium 도서관이 490,000만 권을 합하여 합계 532,800만 권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Alexandria도서관의 장서수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다양하다. 예를 들면, "54,800 권 (Epiphanos)설, 70,000만 권(Isidurs Hisp.)설, 100,000권(Euscbios, Chron. 등)설, 20,000권 (Aristeas et Josephos)설, 40,000권(Seneca et Oroius)설, 700,000권(Ammianus Marcellus et A. Gellius)설 등이다. 이러한 장서 추정수치는 대체적으로 10만 권에서 70만 권까지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로는 대단한 소장 장서수라고 할 수 있다. 그 당시로는 놀라울 정도로 책의 축적이 가능했던 것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첫째, 그리스 세계와 동방 사이의 관계 개방, 둘째, 내용비평 연구에서 새로운 문학 분야의 소개이며, 마지막으로는 이

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첫 번째 왕 (Soter)이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 주었던 책에 대한 애정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창시자와 실행가라는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Ptolemaios I세와 Demetrius 두 사람의 업적으로 이루어진 Alexandria 도서관은 인류가 최초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집대성한 복합 문화관이다. 그리스 문화 주류를 이

루게 한 정신적 소산의 근원지이며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한 Alexandria 도서관은 현재 'New Bibliotheca Alexandria'라는 이름으로 다시 계획되었다. 1974년 Lofty Dowider교수가 처음 제안하여 1986년에 시작한 'New Bibliotheca Alexandria'는 지식과 인식 탐구에 있어서 고대문명에 못지 않은 학문의 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남태우. 1997. 목록법 이론에 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4(1).
- _____. 1990. “사서자격제도” 이대로 좋은가. 『도서관문화』, 31(6).
- 朴俊植. 1986. 古代圖書館史의 再照明: 메소포타미아 地域을 중심으로. 『도서관』, 41(5).
- 高津春繁. 1969. 호메로스의英雄叙事詩. 『岩波新書』.
- 副島秀夫. 1971. Kallimachos의 Pinakesとその現代的意義. 『圖書館學』, no. 18.
- 副島民雄. 列伝体 哲學史と問題別哲學史. 講座哲學大系(2). 昭和38年.
- 栗野頼之祐.アレクサンドリア圖書館目錄の研究 1-3. 關西學院史學 I, II, V.(1952~1959).
- _____. 1942.アレクサンドリア圖書館長錄の研究. 『史學雜誌』, 53(6).
- 澁川雅俊. 1985. 目錄の歴史. 東京, 勁草書房.
- 長谷部文雄. 阿部知二 譯, H. G. Wells, 1969. 世界史概觀 上, 岩波新書.
- Aman, M. Mohammed. 1990. Alexandrian Library rises again, *Herald of Library Science*, 29 (1&2).
- _____. 1990. The New Bibliotheca Alexandrina: A Link In The Historical Cahain of Cultural Cotinutiy. (*Occasional paper* 3), Milwaukee, Wisconsin Univ.
- Archuletta, Polly. 1989. The Estabishment of the Alexandrian Library, *Current Studies in Librarianship*, vol.30, no. 1&2.
- Bianchi, Robert S. The New Alexandiana: A Personal View of the History of the Great Library of Alexandria and the Current Plans for its Revival, *News-letter*, no.148(1989~1990).
- Bingen, Jean. 1988. The Library of Alexandria Past and Future, *Diogenes*, vol.141.
- Blum, Rudolf. 1991. *Kallimachos: The Alexandrian Library and the Origins of*

- Bibliography*. Translated from the German by Han H. Wellisch, Madison, Wisconsin Press.
- Buchanan, Dennis. 1986. Ancient Greek Libraries, *State Librarian*, vol.34, no.3.
- Chepesiuk, Ron. 1994. The eighth wonder reborn: the new Alexandrian Library, *Wilson Library Bulletin*, vol.68, no.4.
- Clark, J. W. 1909. *The care of books: an essay on the development of libraries and their fitting from the earliest times to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sroches, Richard A. 1983. The Library at Alexandria, *Current Studies in Librarianship*, vol.7, no. 1&2.
- Dowd, Sheila. 1989. Alexandria revisited: another look at space and growth, *Collection Building*, vol.9, no.3&4.
- Edward, Edward. 1859. *Memoris of Libraries: A Handbook of Library Economy*, vol.I, London, Burt Franklin.
- Ede, Stuart. 1987. The Alexandriana Library: a new opportunity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ternational library cooperation: 10th Anniversary Essen Symposium*, 19 Oct.~22 Oct.
- El Abbadi, M. 1990. *The Life and Fate of the Ancient Library of Alexandria*. UNESCO., Paris.
- Fraser, Peter M. 1972. *Ptolemaic Alexandria*. Vol. 3, Oxford, Clarendon Press.
- Galen, *Commentary on Hippocrates 'On Epidemics'* iii(xvii a 606-607)
- Gardthausen, Victor. 1922. *Die alexandrinische Bibliothek: ihr Vorbild Katalog und Betried*. Leipzig.
- Harris, M. H. 1984. *History of Libraries in the Western World*. Metuchen, N. J., The Scarecrow Press, Inc.
- Holmes, Anne. 1980. The Alexandrian Library, *Libri*, vol.30, no.4.
- Irwin, Raymond. 1956. Callimachus: Studies in the History of Libraries-IX. *The Library Association Record*.
- _____. 1968. *Ancient and medieval librarie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 1, edited by A. Kent and others. New York, MerceL decker.
- Jacob, Christian. 1997. The Library and the Book: Forms of Alexandrian Encyclopedism, *Diogenes*, vol.45, no.178.
- Johnson, Elmer D. 1970. *History of Libraries in the Western World*. 2nd ed. London, Scarecrow.
- _____. 1955. *Communication: A concise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alphabet, writing, printing, books and libraries*. New Brunswick, Scarecrow press.
- Kramer, S. N. 1981. *History begins at Sumer: thirty-nine-first in man's recorded histor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Mair, A. W. 1955. *Callimachus: Hymns and Epigrams, Lycophron, Aratis*.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Mason, Stephen F. 1962. *A History of the sciences*. New Revised edition. New York, Collier Books.
- Miner, Afton M. & Cranney, A. Garr. 1990. The Alexandrian Library of Antiquity, *The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35th, Atlanta, GA).
- Munthe, Gerhard. 1990. Libraries in the past. 2. The Library in Alexandria. *Synopsis*. vol.21, no.2.
- Norris, Dorothy M. 1939. *A History of Cataloguing and Cataloguing Methods 1100-1850: With an Introductory Survey of Ancient Times*. London, Grafton.
- Parsons, E. A. 1967. *The Alexandrian Library: Glory of the Hellenic World*. New York, American Elsevier Publishing Co., Inc.
- Pfeiffer, Rudolf. 1978.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from the Beginnings to the end of the Hellenistic Age*. Oxford, Clarendon Press.
- Ratt, D. 1990. The Electronic Library Manager's Guide to the New Library of Alexandria. *The Electronic Library*. vol.8, no.1.
- Romerio, G. F. 1994. Antiquity's most famous library to be re-born, *Logos*. vol.5, no.3.
- Salam, Shawky. 1991. The revival of the Alexandria Library: a unique project of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vol.17, no.6.
- Samanta, L. M. 1981.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world's ancient libraries. *Lucknow Librarian*. vol.13, no.3.
- Sandys, J. E. 1958. *A History of Classical Scholarship*. New York, Hafner.
- Schmidt, Fr. 1922. *Pinakes des Callimachos*. Berlin.
- Shera, Jesse H. 1976.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Littleton, Libraries Unlimited, Inc.
- Shubert, Steven Blake. 1993. The Oriental Origins of the Alexandrian Library. *Libri*. vol.43, no.2.
- Staikos, Konstantinos Sp. 2000. *The Great Libraries: From Antiquity to the Renaissance(3000 BC. to AD. 1600)*. Translated by Timothy Cullen. London, Oak Knoll Press & The British Library.
- Tocatlian, Jacques. 1991. Bibliotheca Alexandria: reviving a legacy of the past for brighter common future, *International Library Review*. vol.23, no.3.
- Thompson, L. S. 1979. Roman and Greek librarie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vol.26, New York, Marcel Dekker.
- The New Encyclopedia Britania*. Vol.4, 15th ed.

- Chicago, Encyclopedia Britanica, Inc., 1988.
- Trypains, C. A. 1958, *Callimachus*. Mass., Havard university press.
- Turner, E. G. 1968, *Greek Papyri: An Introduction*.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ellisch, Hans H. 1981, Ebla: The World's Oldest Library. *The Journal of Library History*. vol. 16, no.3.
- Witty, Francis. J. 1958, The Pinakes of Callimachus. *Library Quarterly*. vol.28.